2016 'Book돋움' 백서

JUNGSEOK MEMORIAL LIBRARY

인 하 대 학 교

정 석 학 술 정 보 관

발 간 사

21세기는 미디어 소비시대로 다양한 매체,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과 정보 취득이 컴퓨터를 넘어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대부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읽고, 듣고, 소통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단편화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독서는 보편적인 이치를 깨달아 인성의 수련에서 나아가 교양을 추구하고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독서는 다양한 인생을 미리 맛보고 인생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정석학술정보관에서도 학생들에게 독서기회를 널리 확대하고자 'Book돋움' 행사로 'Book드림', 'Book새통', 'Book나래', '밤샘독서'와 함께 독서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Book드림'은 비교적 시간적 여유를 갖는 동계방학 중에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글쓰기 기회를 갖게 한 행사였으며 'Book새통'은 인문학 강좌로 교내 사학과 서영대 교수님의 '한국인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정호승 시인의 '20대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 강연을 통하여 학생과 대학 구성원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Book나래'는 문학기행 프로그램으로 남한산성의 만해기념관을 방문하여 민족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인 한용운 선생의 정신과 생애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밤샘독서'는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듬Book'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처음 갖는 행사임에도 추억을 듬뿍 만들려는 학생들의 열의가 금요일 밤을 불태운 행사였습니다.

금년의 성공적인 'Book돋움'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두 강사분외에도 한국어문학과 김동식 교수님, 철학과 고인석 교수님과 프런티어학부 송수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준 학교당국, 금년 행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는 오랜 시간 기획하고 준비한 학술정보운영팀의 김봉세 팀장 이하 전 팀원이 일사분란하게 힘을 합쳤기에 가능하였고, 옆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술정보기획팀과 학술정보디지털팀을 포함한 정석학술정보관 전 직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7 년 3월 31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장 정 혜 원

< 목 차 >

Ⅰ. 개요

1. 배경 ····· 4
2. 목표 ····· 4
3. 필요성 ····· 4
4. 조직도 ····· 5
5. 사업내용 도식 ····· 5

Ⅱ. 세부 추진방법 및 내용

1. ‘Book드림’ ····· 6
2. ‘Book새통’ ····· 8
3. ‘Book나래’ ····· 11
4. 독서동아리 지원 ····· 12
5. ‘밤샘독서’ ····· 14

Ⅲ. 실적 및 기대 성과 ····· 16

Ⅳ. 향후 발전계획 ····· 17

Ⅴ. 후기 및 수상작품 모음

1. 'Book드림' 심사후기 / 우수학생후기 ····· 18
2. 'Book새통' 우수학생후기 ····· 23
3. ‘밤샘독서’ 심사후기 / 우수학생후기 ····· 33

□ 부 록

○ 2016학년도 예산현황 ····· 57
○ 2012 – 2016 ‘Book돋움’ 대비표 ····· 59
○ 관련 기사 ····· 62
○ 2016 '정석100선' 목록 ····· 80

Ⅰ 개 요

1. 배경

: 양질의 추천도서목록을 제공하여 좋은 책을 선택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고 독서습관 정착으로 도서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인하100선(選) 선정을 통한 독서 진흥 프로젝트」(2011년 '직원 지식창조상') 가 2012-2013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지정되어 「책 읽는 리더 양성 –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돋움'」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학년도에는 입학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진행함.

2. 목표

가. 독서권장을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나. 즐기는 독서문화 조성 및 확대

다. 독서후기 공모에 따른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 의사표현력 향상

라. 저자와의 소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배양

마. 문학적 체험과 토론문화 활성화로 비판적 사고력 배양

바. 도서관의 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역동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제고

사. 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 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3. 필요성

가. 영상 및 전자정보 증가에 따른 대학생들의 독서량 감소로 창의력 저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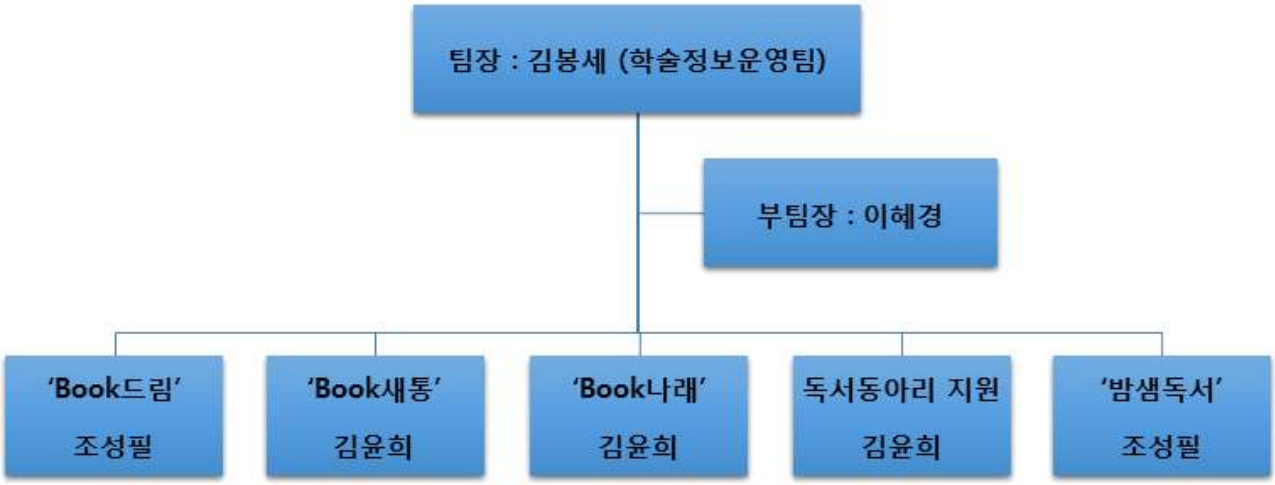
나. 소설 및 실용서 위주의 독서 선호 개선

다. 양서 선택의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라. 평생학습시대를 대비한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

마. 학점 취득과 취업 대비에 지친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식과 교양을 지닌 멘토와의 소통 기회 및 문학적 체험 기회 제공

4. 프로젝트 추진 조직도



5. 사업내용 도식

Ⅱ 세부 추진방법 및 내용

1. 'Book드림'

가. 배 경

: 독서 장려 활동의 일환으로 독서 경험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독서권장 프로그램

나. 목 적

1) 독서 권장을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2) 즐기는 독서문화 조성 및 확대
3) 문학적 체험과 토론문화 형성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과 안목의 배양
4) 후기 및 서평작성을 통한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인 의사 표현력 향상
5) 교양과 상식을 겸비한 인재의 배출로 대학 경쟁력 강화

다. 필요성

1) 영상 및 전자정보 증가에 따른 대학생들의 독서량 감소로 인한 창의력 저하
2) 실용서 위주의 독서선호 개선 : 흥미 위주의 독서습관 현상
3) 평생학습시대를 대비한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 필요

라. 추진일정

기 간	내 용
2016.12.06. ~ 2017.02.14	홍보물 제작/배포
2016.12.19. ~ 2017.02.19	독서후기 접수
2017.02.20. ~ 2017.02.24	독서후기 심사
2017.02.27. ~ 2017.02.28	발표 및 시상

마. 추진내용

1) 독서 후기 제출 공지

- 정석학술정보관 소장 국내외 800번대 도서를 읽고 독서후기 제출 (1,000자 이상)

2) 독서후기 우수작 시상

상급	명 단	상 금
최우수상(1명)	오세휘 (고분자공학)	문화상품권 20만원
우수상(2명)	공주원 (간호학과) 이동원 (철학과)	문화상품권 10만원
장려상(2명)	나병호 (생명과학) 노유진 (국어교육)	문화상품권 5만원
가작(3명)	하예진 (공간정보) 허재황 (아태물류) 곽지훈 (고분자공학)	문화상품권 3만원

바. 효 과

1) 독서 문화 조성 및 확대를 통해 즐기는 독서 습관 형성

2) 독서를 통한 지적 경쟁력 강화로 취업률 향상 기대

3) 교양과 상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사. 향후 발전 계획

1)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지속적인 사업 시행

2) 교양과 흥미를 모두 갖춘 도서 선정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학생 교양 증진에 기여

아. 자체평가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상하는 독서 매니아 층이 형성되고 있으며, 독서동아리 참여 유도를 통해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이공계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로 참여자 전공이 다양화되어, 보편적인 인문학 행사로서 자리매김 함

2) 사업추진 상 예상 외 변수 등 문제점 및 애로 사항

- 2016학년도는 구입한 선정도서를 배부가 아닌 도서관에 비치 후 프런티어 학부대학 과제도서로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독서후기 작성은 동계 방학 중 이벤트 형식으로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800번대 도서를 읽고 독서후기를 작성하는 형태로 바뀜

2. ‘Book새통’

가. 배 경

1) 개인주의 확산으로 의사소통 능력 저하
2) 대학이 취업 준비 기관으로 전락함으로 인해,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기 어려운 현실
3)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목표를 상실한 대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성 제시

나. 목 적

1) 'Book새통'(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작품 및 작가와의 공감대 형성
2) 비판적 사고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3) 'Book새통' 이벤트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 형성
4) 후기 작성을 통해 향후 'Book새통' 행사에 대한 활발한 참여 유도

다. 필요성

1) 독서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로 인한 소외와 단절을 극복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형성
2) 인문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 마련
3) 유명 저자의 강연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라. 추진일정

<1차>

기 간	내 용
2016. 8. 31. ~ 9. 2.	강연자 섭외 : 본교 사학과 서영대 교수님 초청
2016. 9. 5. ~ 9. 30.	홍보물 제작 및 배포
2016. 10. 4.	강연 진행 (참가자 : 190여명)
2016. 10. 4. ~ 10. 11.	후기 접수 (등록건수 : 12건)
2016. 10. 12. ~ 10. 14.	후기 심사 및 수상자 명 발표

<2차>

기 간	내 용
2016. 8. 29. ~ 10. 13.	강연자 섭외 : 정호승 시인 초청 (학술정보기획팀 협조)
2016. 10. 18.	강연 주제 선정 : ’20대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
2016. 11. 1. ~ 11. 16.	홍보 및 신청자 접수
2016. 11. 17	강연 진행 (참가자 : 200여명)

마. 추진내용

1) 행사내용

-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교내 및 교외 강연자 초청
- 강연 및 대화 등을 통하여 희망적 메시지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 행사참가 후기 홈페이지 게시

2) Book새통(1차) 우수 후기 시상

- 일시 : 2016년 10월 25일(화)
-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시상 내역

상 급	명 단	상 금
최우수상(1명)	노유진 (국어교육과)	문화상품권 10만원
우수상(2명)	박건희 (사학과) 최치원 (사학과)	문화상품권 5만원
장려상(5명)	이상규 (환경공학과) 조영진 (사학과) 최윤하 (사학과) 방문문 (한국학과) 피루자 (다문화학)	문화상품권 2만원

바. 효 과

- 작가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한 참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및 독서 동기 유발
- 저자와의 대화를 통한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 다양한 관점으로 현상을 관찰·사고할 수 있는 시야 확대
- 독서를 통한 자기 성찰 및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인재 양성에 기여

사. 향후 발전 계획

1) 학생들의 호기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저자 섭외

2) 'Book새통' 진행 방식의 다양화 : 북 콘서트, 토론회 등

아. 자체평가

1) 사업 추진 결과 잘 된 점

- 본교 교내 교수님을 초청하여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없었던 주제에 대해 강연을 들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다소 무거운 주제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재치 있는 언변으로 지루하지 않게 강연을 진행하여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음
- 행사 당일 오전에 실시한 리허설을 통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었음

- 저자가 강연 촬영을 동의하여 행사 내용을 녹화할 수 있었으며, DVD로 제작하여 향후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음
- 행사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1·2차 모두 96% 이상의 학생이 초청강연자와 강연주제에 대해 만족하였고, 97%이상의 학생이 행사 진행에 대하여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2) 사업추진 상 예상 외 변수 등 문제점 및 애로 사항
- 학교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강사료로는 유명 강사를 섭외하기 어려움. 강연 전문 기획사를 통한 섭외 시, 최소 요구 금액 200만원은 향후 저자특강 진행 시 참고해야할 사항임
- 추가로 배정받은 예산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행사 일정 및 예산 수립 등을 미리 계획하기 어려웠음

3. 'Book나래'

가. 배 경

: 전자매체로 지식과 문화콘텐츠를 습득하는 학생들에게 문학의 정취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생각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문학기행을 계획함

나. 목 적

1) 'Book나래'(문학기행)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도 및 문학적 소양 향상
2) 문학관을 방문함으로써 작가의 생애와 작품관을 이해함으로써 자발적인 독서동기를 부여
3)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생들이 대화와 답사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회 제공
4) 인문학적 통찰력과 창의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필요성

1) 과도한 학점 경쟁과 취업 경쟁으로 건전한 인성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타인과의 소통, 교류 제약
2) 전공서와 자기개발서 등의 편중된 대학생들의 독서습관
3) 평면적인 문학 감상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문학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라. 추진일정

기간	내용
2016. 9. 19 ~ 10. 5	2015년도에 계획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행장소 예비조사
2016. 10. 6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사전 답사 - 소요시간 조사, 식당 예약 - 만해기념관 해설 및 시낭송 프로그램 장소 예약 - 남한산성 탐방 코스 및 해설 예약
2016. 10. 10 ~ 10. 31	일정 수립 및 계획안 작성 - 배너 및 현수막 제작 - 강사 섭외 (정영진 박사과정) - 차량 및 보험 문의
2016. 11. 1 ~ 11. 18	신청자 모집 (Book드림 수상자에게 우선권 부여)
2016. 11. 8 ~ 11. 18	간식 및 물품 구입
2016. 11. 19	문학기행

마. 향후 발전 계획

1)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학 기행 추진
2) 날씨 또는 교통상황 등의 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세밀한 준비
3) 교비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 시행

4. 독서동아리 지원

가. 배 경

1) 'Book드림'을 비롯한 'Book돋움'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독서 매니아 층이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
2) 대학 내 소모임 위주로 형성된 기성 독서동아리로부터 도서관 지원에 대한 문의와 요청에 대응
3) 'Book돋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독서 매니아 층과 대학 내 기성 독서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한 교비 예산 배정을 진행하고 'Book돋움' 사업 범주에 포함

나. 목 적

: 정기적인 인문학 고전 독서 및 토론으로 독서하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함

다. 필요성

: 도서 나눔 / 독서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독서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책을 읽고 느낀 바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토론 모임을 조직

라. 추진일정

기 간	내 용
2016. 3. 2 ~ 3. 11	독서동아리 신규 회원 모집
2016. 3. 11 ~ 3. 17	오리엔테이션 및 독서동아리 운영 계획안 접수
2016. 3. 17 ~ 2017. 2	독서토론 도서 지원

마. 추진내용

1) '북다방' 독서토론 도서지원 : 7종 38권
2) '독서삼매경' 독서토론 도서지원 : 4종 31권
3) 홈페이지의 독서동아리 게시판에 독서후기 등록

▣ 지원 도서 목록

동아리명	서 명	저 자	출판사
북다방	소송	프란츠 카프카	열린책들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	헤이북스 출판사
	안녕 주정뱅이	권여선	창비
	채식주의자	한강	창비
	The Vegetarian	한강 지음 Deborah Smith 옮김	Hogarth
	면역에 관하여	율라 비스	열린책들
	한계비용 제로 사회	제러미 리프킨	민음사
독서삼매경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	까치
	서양미술사	E.H 곰브리치	예경
	그리스 로마 신화	토마스 불핀치	혜원출판사
	일의 기쁨과 슬픔	알랭 드 보통	은행나무

바. 효 과

1) 일회성 이벤트로 'Book돋움' 행사에 참여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독서기회 제공
2) 토론을 통한 논리적 표현력 향상에 기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훈련을 통해 성숙한 의사소통 문화 정착

사. 향후 발전 계획

: 지속적인 고전읽기 훈련으로 'Book돋움'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인 "책 읽는 리더 양성"에 기여

아. 자체평가

1) 사업 추진 결과 잘 된 점
- 취업 중심의 대학 생활에서 벗어나 고전을 읽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치 있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대학 내 독서 모임의 중심이 됨
- 같은 도서를 함께 토론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더라도, 복본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도서 선택과 토론의 제약을 없앰

2) 사업추진 상 예상 외 변수 등 문제점 및 애로 사항
- 학생들의 자율성에 따라 활동이 진행되므로, 책임감 있게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아리장의 리더십이 중요함
- 보다 많은 학생들이 독서 활동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밤샘독서’

가. 배 경

: 독서권장프로젝트 ‘Book돋음’ 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독서 문화 증진과 이벤트를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나. 목 적

1) 책과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 학창시절 추억을 제공
2) 독서 후기를 작성함으로써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 의사 표현력 증진
3) 다양한 독서 행사로 도서관 이미지 제고

다. 필요성

: 도서관은 공부만 하는 곳 이라는 통념을 벗어나 이벤트 행사를 통해 이용자와의 거리를 좁혀 딱딱한 도서관의 이미지를 벗고, 자연스레 독서에 관심을 갖게 하여 도서 이용률 증대에 기여

라. 추진일정

기간	내용
2016. 11. 7 ~ 11. 20	계획안 작성 및 일정 수립 - 배너 및 현수막 제작 - 행사장소 선정 - 해당부서 협조(난방, 경비, 의약품, 기타용품) - 독서 후기 심사 섭외 (송수연, 정영진)
2016. 11. 8 ~ 11. 23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 참가자 접수
2016. 11. 25	이벤트 행사 준비 - 현수막, 배너 설치 - 접수테이블, 그래피티 설치 - 간식 및 물품 구입
2016. 11. 25 ~ 11. 26	밤샘독서 행사 진행(참가자 : 102명) - 독서 후기 제출(참가자 : 68명)
2016. 11. 26 ~ 12. 2	독서 후기 심사
2016. 12. 8	독서 후기 수상자 발표 및 시상

마. 추진내용

1) 행사내용

- 야식타임, 그래피티, 인하사랑 배지찾기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추억 제공
- 독서 후기를 작성함으로써 글쓰기 능력 및 표현력 증진
- 행사참가자 우수 독서 후기 홈페이지 게시

2) 밤샘독서 우수 독서 후기 시상

- 일시 : 2016년 12월 8일(목)
-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시상 내역

상 급	명 단	상 금
최우수상(1명)	백연진 (신소재공학부)	문화상품권 30만원
우수상(2명)	나병호 (생명과학과) 김자혜 (국어교육과)	문화상품권 20만원
장려상(5명)	장지성 (경영학과) 김유나 (사학과) 이상우 (경제학과) 김성중 (사학과) 김영지 (수학과)	문화상품권 10만원
가작(5명)	정다희 (문화경영학부) 우승호 (전기공학과) 이승준 (에너지자원) 최유정 (경영학과) 고혁준 (생명과학)	문화상품권 5만원

바. 효 과

- 학창시절 추억 제공
- 도서관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 독서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 및 정서순화로 건강한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

사. 향후 발전 계획

- 1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진행되는 행사를 위한 예산확보
- 강사를 초청하여 단순한 책읽기 행사를 벗어나 문학교류의 장 마련

아. 자체평가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처음 시행되는 행사임에도 신청자가 166명이 넘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음
- 밤샘독서 행사 중 독서 후기, 인하사랑 배지 찾기, 그래피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
- 행사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98% 이상의 학생이 행사 진행에 대하여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2) 사업추진 상 예상 외 변수 등 문제점 및 애로 사항

- 기말고사 기간과 시간이 겹쳐 신청자와 참석자 인원에 차이가 있었음
- 지정된 도서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음
- 행사당일 동시간대에 도서 대출량이 많아 대출시간이 지체되었음
- 늦은 시간 행사가 진행되어 이탈자에 대한 안전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Ⅲ 실적 및 기대성과

□ 실적 및 성과 : 투입 – 산출 – 성과 체계 / 주요 실적 / 기대성과

<table>
<tr><th rowspan="2">투입
(input)</th><th rowspan="2">산출
(output)</th><th colspan="2">성과(outcome)</th></tr>
<tr><th>중.단기성과</th><th>장기성과</th></tr>
<tr><td>'Book드림'
- 도서 지원 : 240권
- 참여 학생 : 21명
- 심사 교수 : 1명
- 진행 직원 : 2명</td><td>- 독서후기 접수 : 21건
- 우수작 시상 : 8명
- 권장도서 2권 선정</td><td rowspan="5">- 독서에 대한 관심 및 독서량 증가
- 독서후기 공모에 따른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 의사표현력 향상
- 저자와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배양
- 전통문화와 자연과 접하는 체험을 함으로써 정서적 순화에 기여
- 참여 학생들 간의 대화와 토론의 장을 조성해 줌으로써 비판적 사고력 배양
- 책과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 학창시절 추억을 제공</td><td rowspan="5">- 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 평생학습시대를 대비한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독서 습관 형성
- 도서관의 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역동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제고
- 독서토론과 대화를 통한 민주 시민의 자질 향상
- 독서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 및 정서순화로 건강한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td></tr>
<tr><td>'Book새통'
<1차>
- 도서 배부 : 없음
- 참여 학생 : 190명
- 강연 작가 : 1명
- 진행 직원 : 3명

<2차>
- 도서 배부 : 100권
- 참여 학생 : 200명
- 강연 작가 : 1명
- 진행 직원 : 3명</td><td>- 참석후기 접수 : 12건
- 우수후기 시상 : 8명</td></tr>
<tr><td>'Book나래'
- 참여 학생 : 26명
- 강사 : 1명
- 진행 직원 : 4명</td><td></td></tr>
<tr><td>'독서동아리 지원'
- 도서 지원 : 11종/69권</td><td>- 독서토론 모임 및 고전 독회모임 운영
- 후기 및 발제자료 홈페이지 수록</td></tr>
<tr><td>'밤샘독서'
- 참여 학생 : 102명
- 심사 교수 : 2명
- 진행 직원 : 3명</td><td>- 독서후기 접수 : 68건
- 우수작 시상 : 13명</td></tr>
</table>

Ⅳ 향후 발전계획

□ 향후 발전계획

○ 교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 시행

○ 'Book돋움' 세부 프로그램의 특화된 성격 및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 참여도 및 실적 증가

○ 학생들의 호기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저자 섭외 및 다양한 방식의 'Book새통' 진행

○ 성공적인 'Book새통' 행사 진행을 위해 유명강사 섭외

○ 'Book나래'를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하여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한국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학기행으로 진행

○ 전국 대학생 규모의 독서토론 대회 참여 등 독서동아리 활동 장려

V 행사 후기 및 수상작품 모음

1. ‘Book드림’ 심사후기 / 우수학생후기

가. 'Book드림' 심사후기

“인간의 최초의 선의는 불꽃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디찬 현실세계의 공기에 의해 쉽게 꺼져버린다. 불꽃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땔감을 넣어야 하지만 메마르고 추운 세상에는 항상 자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땔감인 독서가 지속되어야 한다. 세계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지속되는 독서다. 독서는 의미의 바다인 동시에 가능성의 세계인 것이다.” 대만의 문화평론가이자 출판인인 탕누어의 책『마르케스의 서재에서』의 한 구절이다. 세상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눈과 귀를 사로잡는 유혹이 도처에 가득한 지금, 어딘가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장시간 책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길을 낸다.
학생들의 글은 춥고 뒤숭숭한 겨울이 끝나고 곧 봄이 올 것임을 알리는 전령과도 같아 읽는 내내 큰 기쁨이 되었다. 특히 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 세상을 읽어내는 만만치 않은 독법이 믿음직했다. 오세휘 학생의 글은 단순한 독서후기를 넘어,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의 계기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른 수작이라 생각되어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카스테라』를 읽은 공주원 학생의 글이나『과학의 지형도』를 읽은 노유진 학생의 글, 가라타니 고진의『근대문학의 종언』을 삶(사랑)과 철학으로 풀어낸 이동원 학생의 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좋은 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힘이 있다”고 한 곽지훈 학생의 말처럼, ‘의미의 바다이며,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인 책과 함께 자신을 살찌우고 자라게 하는 새 학기가 되기를 빈다.

프런티어학부 송수연

나. 'Book드림' 우수학생 후기

1) 최우수상

가) 고분자공학과 오세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한참을 고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멍하니 아득하다. 간혹 활자들이 여럿 떠돌기는 하나 그래도 도무지 모르겠다. 필시 이것은 고양이 선생의 집요한 시선이 머물렀던 인간 군상이, 마지막 장을 덮을 때에는 고스란히 나로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름 없는 고양이 한 마리가 중학교에서 영문 강독을 가르치는 구샤미 선생 댁으로 기어들어간다. 고양이는 ‘나’로서 작가의 눈을 대신하는 존재이다. 구샤미 선생 댁에서 기거하게 된 고양이는 선생과 그 주변 인물의 행동거지,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구경하고 관찰하면서 인간의 식견을 갖춘 지적 고양이로 발전한다. 어쩌면 고양이는 속세의 인간, 그 이상의 어떤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구샤미 선생 댁에는 종종 여러 인물들이 찾아와 선생과 이런저런 담소를 나눈다. 인간의 식견을 갖춘 고양이는 담소를 엿듣고, 인물들의 행동거지를 관찰하여 일화별로 기술한다. 마지막에 이르러 고양이

는 물독에 빠져 비극적이나, 기쁜 죽음을 맞이하며 책을 덮는다.

작품은 중심이 되는 일정한 스토리 없이 각종 사건이나 담화들만이 고양이에 의해 지루하게 소개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루함은 작품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인간에 대한 신랄한 해학과 고양이의 걸쭉한 입담으로 해소된다. 다양한 일화가 있고, 그에 따라오는 고양이의 통렬한 비평과 해학이 있으나 그 중 나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온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려 한다. 이를테면 다음은 구샤미 선생이 새해 벽두에 발신자가 적혀있지 않은 편지 한 통을 받았을 때의 일이다.

"그거 참 의미심장하군. 철학을 꽤나 연구한 사람인가 보군. 음, 대단한 식견이야."

서재에 틀어박혀 마치 대단한 암호를 푼 것 마냥 도무지 난해한 편지를 해석한 자신을 격찬했다. 실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병자 동창의 편지였을 뿐인데 말이다. 이를 두고 고양이는 다음과 같은 촌평을 남겼다.

"이 한마디로도 주인의 무식함을 잘 알 수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다소는 그럴 만하다 싶다. 주인은 무슨 일이든 자신이 모르는 것은 대단하다 여기는 버릇이 있다. 물론 이는 우리 주인에 한하는 버릇은 아닐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에는 허투루 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 여기고, 가늠할 수 없는 것은 왠지 대단하다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그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떠벌리지만 학자들은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모르는 것을 다 안다는 양 착각하고 존경하는 것은 심히 유쾌한 일이다."

구샤미 선생이 나인지, 내가 구샤미 선생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나를 두고 한 말인 듯 고양이의 말이 끝나자 내 얼굴이 붉어졌다. 책을 잡고 있는 내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언행이 마치 나의 입과 사지를 빌려간 듯 무척이나 닮아 고양이의 촌평이 곁들어질 때면 잠시 책을 덮었다. 그 이유인 즉, 부끄럽기도 할뿐더러 근래에 나를 두고 오갔던 주변인들의 말이 마치 거대한 시대적 담론이기라도 한 듯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친구야 나는 그렇게 느껴져. 너를 둘러싸는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이 있어. 그런데 그게 하루에도 어찌나 그렇게 높게 쌓이는지 도무지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야. 너의 약점이 보일듯 하면 너는 재빨리 그 부분에 벽돌을 높게 쌓아버리지. 그리고선 다른 이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가장 높은 망루에 올라앉아 남들을 비평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그 성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게 될 것 같아."

얼마 전 나의 죽마고우 하나가 조심스레 이런 말을 건넸다. 물론 정확히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아니다. 그날 오고갔던 무수한 말들을 짧게 집약하였을 뿐이다.

이 말로 하여금 책 속의 구샤미 선생과 메이테이 선생, 그리고 산페이 군 모두 내 안에 있음을 보았다. 친절한 친구가 나의 페르소나 안에 감추어진 민낯이 그네들임을 일깨워주었다. 구샤미 선생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설령 굽힌다 할지라도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 진정 타인에 대한 공감력은 결여되었다. 또한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지 않으며 어설픈 지식으로 아는 체를 해댄다. 그렇다면 메이테이 선생은 어떠한가. 자신이 뭐라도 되는 양 우쭐대며 남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이를 유희거리로 공격해댄다. 산페이 군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절여져 진정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정신적 가치를 폄하한다. 이 모든 것이 내안에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

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었으나 쉬이 알 수 없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일본에서 메이지 시대가 열리며 근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한창이던 1905년이다. 서양의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전파됨에 따라 전통적인 정신적 가치들과 대립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혹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작품 전반에서 선생들의 대화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작가인 소세키가 고양이뿐만 아니라 각각의 인물들에 투영되어 말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놀라운 점은 특히 인물들의 마지막 대담이 당시와는 시대적 상황이 다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음이다.

"사람들은 보통, 문명이 발달하면서 살벌한 기운이 없어지고 개인과 개인 사이가 온화해졌다고 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야. 그렇게 자각심이 강한데 어떻게 온화해질 수 있겠나. 언뜻 보기에는 아주 조용하고 아무 탈 없는 것 같아도, 서로는 몹시 힘겹고 팽팽한 관계에 있지. 마치 씨름 선수가 모래판 한가운데에서 서로의 샅바를 잡고 꼼짝 않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옆에서 보기에는 지극히 평온하지만 당사자들의 배는 힘을 주느라 불끈불끈하지 않은가."

선생의 이 말은 작금의 세태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 100년이 지나 문명은 더욱 발달했으나 우리네는 여전히 샅바를 놓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잡은 채로 부들부들 떨고 있다. 나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더 많은 지식으로 나를 살찌우고 있다. 내가 최고인 양 우쭐대고 상대를 도발하고 깔본다. 목적은 오직 승리이고, 그리로 가는 길목에 놓인 장애물은 어떠한 것이든 철저하게 제거되어야만 한다. 약점이 들춰지지 않도록 깊숙이 숨기고, 무서운 페르소나를 쓰고 모래판 한가운데에 서있다. 그러다보니 오직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나까지 잃어버렸다. 선생은 자각심이 강한 것이 문제인 듯 말하였으나 나까지 잃어버린 마당에 자각심은 아스라이 사라진 한여름 밤의 꿈과 진배없다. 모래판 위에서 내려와서도 나는 긴장을 놓지 못한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자고, 먹고, 다시 모래판 위에 선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샅바를 잡고 있다. 나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는 패배에 대한 절망감에 얼마 전 목을 매달았다. 너무 슬펐다. 그런데도 다음날 나는 다시 모래판 위에 서있었다. 그리고선 습관처럼 견고한 성을 쌓아갔다.

마지막 장을 덮고, 한 며칠 생각했다. 모래판 위에서 나는 어떤 인간으로 서있어야 할까. 예의 쉬이 얻어지지 않던 물음에 대한 답이 미약한 불빛을 냈다. 모래판에서 내려오기로 했다. 찌웠던 살을 빼고 담백한 몸으로 모래판 아래에 서있기로 했다. 견고하게 쌓았던 성벽을 허물기로 했다. 작품의 해학적인 요소들 기저에 깔린 비애감에 젖어 염세주의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다. 모래판을 떠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갈 것이다. 여행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후 나는 모래판 세상에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지 지금은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래판 위에 등을 맞댄 사람들이 슬퍼할 때 기꺼이 안아줄 것이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선 팽팽하게 동여맨 샅바를 느슨하게 풀어줄 것이다.

지금 내가 두발을 딛고 서있는 세상은 거대한 모래판과 같다. 책의 마지막 서너 장을 남겨두고 고양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늘 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을 두드려 보면 어디에선가 슬픈 소리가 난다."

아마 나를 비롯한 모래판 위에 서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두드려 보면 슬픈 소리가 무한한 파동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휭휭 슬프다. 그러나 모래판 위에서 패배하여 내려오더라도 그

아래에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 둘씩 용기를 내어 내려올 수도 있다. 나는 먼저 내려가 내려오는 이들을 반겨줄 것이다. 그러다보면 세상은 조금은 덜 슬퍼지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세상을 등진 나의 친구에게 말하고 싶다. 모래판 위에서 치열하게 싸우느라 그 아래에서 울고 있는 너를 보지도, 안아주지도 못해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내려온 나를 용서해달라고.

2) 우수상

가) 간호학과 공주원 (카스테라)

김치콩나물국을 좋아한다. 김치콩나물국인지 콩나물김칫국인지 종종 헷갈리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중요치 않다는 생각이다. 나는 학교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도 그것을 종종 만들어 먹는다. 김치와 콩나물만 넣고 끓이는 단순한 요리일 거라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세상에 만만한 요리는 없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나는 우선 한 솥 가득 물을 끓인다. 끓는 동안 멸치의 배를 갈라 다듬는다. 물이 끓을 때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우려낸다. 다시마는 너무 오래 우리면 떫은맛이 나온다는 얘길 어디선가 들은 후로는 중간에 다시마를 건져 올리는 것도 잊지 않는다. 어느 정도 국물이 우려 나오면 나는 김치통을 꺼낸다. 10킬로그램에 만 오천원남짓 하는 업소용 중국산 김치다. 김치와 김치 국물을 넣은 후에는 콩나물을 한 움큼 넣는다. 뚜껑을 닿고 이번엔 대파를 송송 썬다. 청양고추가 있는 날은 그것도 함께 썰어 준비한다. 지난 번 요리에 쓰이고 잠들어 있던 두부 반 모를 꺼내 자른다. 대파와 청양고추와 두부를 모아 냄비 안으로 투하한다. 김치콩나물국은 매 저녁마다 함께하는 유일한 반찬이었다.

그런 식으로 스물한 살을 났다. 대다수의 청춘이 그렇듯 마찬가지로 녹록치 않았던 나의 스물한 살은 이를테면 그런 형태였다. 건더기보다 국물이 많은 김치콩나물국 한 그릇으로 버티는 거였다. 그러면 이 후덥지근한 국물처럼 내일도 술술 넘길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내일도 오늘처럼 끊임없이 치이고 겉돌겠지만, 어쨌든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용감한 착각마저 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내게『카스테라』가 어떤 내용이냐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외로운 누군가를 위해 박민규라는 작자가 준비한, 뜨끈한 김치콩나물국 한 대접이랍니다.

책에 실린 단편집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표제작이기도 한「카스테라」였다.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지만 의외로 눈물이 없는 내가 이 소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으니 말 다했다. 물론 개연성과 사실성으로만 평가하자면 이 소설은 참 난감하기 짝이 없다. 백 번 양보해서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을 수 있다 치자. 하지만, 냉장고에 아버지를 넣을 수 있는가? 주인공은 과감하게 냉장고에 아버지를 넣는다. 아버지는 들어가서 독서를 하고, 그런 아버지에게, 어떻게, 온도는 좀 맞으세요? 하고 묻는다. 이럴 수 있는가 싶겠지만, 소설은 뭐 아무렴 상관 없지,하고 읊조리며 이번에는 어머니와 학교와 사채업자를, 미국과 중국을 넣는다. 방법은 간단하다. ①문을 연다. ②넣는다. ③문을 닫는다.

주인공이 냉장고에 그것들을 넣기 시작한 것은 고장나버린 냉장고가 굉장한 소음을 내뿜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여기까진 그리 낯설지 않다. 처음에는 주인공도 지극히 평범한 대처 방법을 고안해내니까 말이다. 주인공은 냉장고를 수리하기로 한다. 하지만 세상에 만만한 요리가 없듯 세상에 만만한 일도 없는 법, 기껏 찾아간 중고가전상은 내부수리중이고, 수차례 찾아온 A/S기사는 <이 짓도 이제 관둬야겠어>라는 말을 끝으로 돌아간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공은 냉장고를 보며 생각한다. 왠지 이 냉장고의 전생은 홀리건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한때 벨기에 브뤼셀에서 목청이 터져라 응원하다 영국 응원단에게 장렬하게 깔려 전사한, 남자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그 남자가 열을 식힐 줄 아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 냉장고로 환생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고장나버린 낡은 냉장고에게서, 그리고 그것과 공존하는 주인공에게서 나는 어떤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다. 냉장고의 소음에 익숙해져 가고, 어쩌면 그 냉장고에겐 이러저러한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에게서

젊은 우리의 모습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는 대학생인 주인공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고, '나는 늘 불쾌할 정도로 외로웠다.'는 그의 독백이 낯설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와서는, 자신이 빚을 졌으며, 우리가 대를 이어 갚아야 할지도 모르므로 함께 책임을 지자고 하는 가느다란 모습에서는 어떤 큰 파장 같은 것을 느꼈다. 그것들은 2016년 언저리를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었다. 친목과 여행과 취미, 모든 것에는 돈이 드는데 사실 주머니 사정도 그리 좋지 않아서 한 번씩 쓴웃음을 짓는 나와 내 친구들에 대해, 좋아서 택한 전공이 취업률이라는 무참한 지표 아래에서 사라져가는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에 대해, 그 현실이 야속하고 혼란스럽지만 묵묵히 전과나 복수전공 제도를 택하는 것에 대해, 통장 잔고는 구천 팔백 육십원이 전부인데 현금 인출은 만원부터 가능해서 ATM기기를 몇 번이나 쥐어박고 싶었던 우리의 젊은 일상에 대해. 그러나 우리는 청춘이기에, 어쨌거나 그것을 살아내는 일에 대해.

결국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느 날 냉장고의 소음이 멈추고 주인공이 문을 열었을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학교나 사채업자나 미국이나 중국 대신, 한 조각의 카스테라가 있었을 뿐인데, 그런 결말이 왠지 슬프거나 애처로웠던 까닭이다. 주인공이 '마치 하나의 세계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카스테라를 집어올리고, '멀리 유스타키오관까지' 퍼지는 달콤한 맛을 두고는 '그것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맛이었다'라고 표현할 때, 어딘가 가슴 한 켠이 따뜻해졌던 까닭이다. 왠지 나 역시, 나의 모든 소외된 젊음을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까닭이다. 주인공은 그 카스테라를 씹으며 눈물을 흘렸고, 나도 눈물을 흘리며 그런 생각을 했다. 그가 한 조각 베어 문 카스테라는, 이를테면 내가 하루의 끝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김치콩나물국 같은 것이었으리라.

책에 실린 다른 단편집 역시 매우 좋다. 21세기는 개성의 시대라고들 하는데, 과연 개성으로 똘똘 뭉친 책이다. 다른 작품들도 「카스테라」만큼이나 독특하고 흥미진진하다. 아버지가 기린으로 변하고, 펠리컨을 타고 멕시코 사람들이 등장한다. 동시에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슬픈 구석이 있다. 기린으로 변한 게 슬프고, 펠리컨을 탄 멕시코 사람들이 슬프다. 나는 그게 좋다.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타인의 슬픔을 연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저쪽 구석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사연 같은 것들을, 그들 고유의 내재된 눈물을 우리는 좀 더 연습할 필요가 있다.

「카스테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끝으로 이만 글을 마칠까 한다.

어쨌거나 그런 이유로 다음 세기에는 이 세계를 찾아온 모든 인간들을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라고 나는 생각했다.

추웠을 테니까. 많이 추웠을 테니까 말이다.

2. 'Book새통' 우수학생후기

가. 'Book새통' 우수학생후기

1) 최우수상 : 국어교육과 노유진

< 평생의 미제, 죽음에 관하여 >

'죽음이 감히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비밀스런 죽음의 집으로 달려들어간다면 그것은 죄일까?'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곁을 맴도는 죽음이 언제 나에게 운명의 손을 내밀지 모른다. 죽는 데에는 순서가 없으므로, 남녀노소 죽음은 늘 두려운 존재이다. 지난 10월 4일에는 '한국인의 죽음 이후의 세계(우리나라 귀신 이야기)'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에서 Book새통 강좌가 열렸는데, 평생의 미제인 죽음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귀신 문제에 접근하는 입장에는 세가지가 있다. 심령 세계와 교류를 통해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 있다. 반대로 귀신을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는 귀신을 문화현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강연은 귀신을 문화현상으로 보고 한국 귀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3세기에 중국인이 편찬한 '삼국지'의 '동이전'에서 봐도 한국에서 귀신이 널리 신앙되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귀신은 '죽은 이의 넋(ghost)', '모든 초자연적 존재(spirit, god)' 그리고 '천지조화의 움직임'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성리학자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그들은 귀신을 천지조화의 움직임이라고 본다. 그런데 자기모순에 봉착한다. 죽음이란 모였던 기가 흩어지는 것이라면 제사의 대상이 없어지기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워했을지 상상이 됐다. 추후 '같은 기끼리의 감응'이라는 논리를 추가로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느껴졌다.

한국 귀신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대부분 TV 전설의 고향에서 본 흰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처녀귀신이 떠올릴 것이다. 중국이나 서양 귀신은 남성이 많은데, 한국은 왜 하필 처녀 귀신일까? 이는 한국 문화와 관련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 한국 전통 사회는 남존여비였기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낮았다. 여성이 혼인하고 아들을 낳아야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런데 아들은 커녕 심지어 결혼까지 못 하고 죽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길을 원천 봉쇄당한다. 그래서 처녀귀신은 한을 품고 있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무서운 귀신의 최강자 자리에 등극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귀신의 관념도 세월이 가면서 계속 변했다. 형상이 점차 무서워졌고, 도시화에 따라 출몰 공간도 변하며, 외래 귀신 관념의 영향도 받게 되었다. 한국의 귀신관은 중국, 일본, 서양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귀신의 선악 2원론이나 산발, 소복, 흡혈과 같은 요소들은 본래 한국 귀신들에게는 없었지만 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아이비리그에는 3대 명강의가 있다. 바로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 하버드대 탈 벤 샤하르 교수의 "행복", 예일대 셸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 강연이다. 간과하기 쉽지만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삶의 본질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 중 "죽음"에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익한 강

연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했다.

마지막에 한 학우가 "신내림을 받는 것은 유전의 영향이 있는 것인가요?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이렇게 문화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귀신의 존재 유무와 사후세계는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고 현대사회는 귀신을 비이성적 관념의 결과물로 치부하기도 한다. 이런 때 귀신의 존재와 사후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그래도 여전히 답답함이 남는다. 인류 대대로 죽음의 비밀을 푼 사람이 없기에 이는 평생을 안고 가야할 난제라는 생각이 든다.

2) 우수상

가) 사학과 박건희

< 삶과 죽음 >

이번 인문학강좌를 통해 사학과에 다니며 몇 년 동안 들어왔던 서영대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또 한 번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좋았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할 때에는 시험이라는 압박 때문에 외우는 위주로 수업을 들었지만 이번 기회에 가벼운 마음으로 죽음이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 처음에 고대 로마의 속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점이며, 가장 불확실한 것은 죽음이 닥치는 시기"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고 계속해서 그 말이 머리에 머물렀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은 무섭기도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머나먼 과거부터 모든 인간들이 해왔다는 사실. 또한 죽은 뒤는 어떨까하는 생각은 누구나 해왔는데 과거부터 우리 인류가 죽은 뒤에 대해 생각한 것들은 정말 다양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임사체험을 했을 때 각자 보는 것은 다르지만 강이라는 것은 모두 봤다는 점에서 정말로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 자신들의 문화가 반영되어 보인다는 점에서 사후세계라는 것은 귀신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내세 관념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존재가 과연 현실에서 존재할지는 의문이지만 과거부터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언급해왔고 또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귀신의 성격이 변하는 과정이나 강시나 흡혈귀와 같은 외국에서의 귀신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들으며 우리 인간들이 귀신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인위적으로 내재시켜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에 대해 생각하며 왜 우리 인간은 이러한 관념을 만들게 되었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신이나 사후세계의 관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며 조그마한 점으로 보이는 지구의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를 보고 미국의 천문학자인 칼세이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 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들,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들, 경제 독트린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 교사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들, 인간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 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오랜 시간동안 이 지구 속에서 인간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하고 사후세

계와 귀신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지금의 우리 역시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삶과 죽음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 찰나의 시간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즐긴다면 후회 없는 삶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며 귀신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해 더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사학과 최치원

< '한국인의 죽음 이후의 세계' 강좌 소감: 일상적 소재 속에서 심오한 의미를 꺼내다 >

나는 사학과에 다니면서 많은 역사학 수업을 듣고 있지만, 학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수업은 내용이나 분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학과 수업 외의 역사 강좌들은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나, 적당한 시간대에 맞춰서 짜인 강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Book새통 인문학강좌' 안내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주제, 시간대, 그리고 강좌를 진행하시는 교수님까지 모두 마음에 들었고, 꼭 이 강좌를 듣겠다고 마음 먹었다. 특히 '한국인의 사후관'에 대한 주제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다. 일상적이지만, 파고들수록 불분명하고 모호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교수님이 이렇게 일상적이면서도 심오한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으로 지체 없이 달려 가게 되었다.

나는 강좌가 시작되기 20~30분 정도 일찍 가서 교수님의 강의자료를 훑어보았다. 미리 강의자료를 숙지하여 교수님의 강좌에 더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강의자료를 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진부하다고 느꼈다. 아무래도 소재가 익숙하다 보니 강의내용도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아직 연구 중에 있다는 내용을 보니 어쩌면 강의가 이해를 위한 설명이나, 근거가 조금 빈약한 자기주장 위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이내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시간은 훌쩍 지나버렸고 강의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강의를 계속 들을수록 나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의자료만으로 강의 전체를 평가한 것은 나의 경솔한 행동이었다. 내가 읽은 자료들 중 진부하다고 느낀 부분들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자료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교수님의 독특한 주장과 분석적인 근거가 강의를 통해 드러나면서 나는 저절로 강의에 집중하게 되었다. 강의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에서 처녀귀신이 대표적인 한국의 귀신이라는 지위를 갖게 된 원인을 가족제도와 신분제도에서 찾아낸 것과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그러한 시기를 조선시대로 상정한 것이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귀신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설명해주신 덕에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귀신의 이미지가 과거와는 사뭇 다르고,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태까지 귀신의 자극적인 이미지 때문에 과거 사람들의 관점이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이 강좌 덕분에 일상적 소재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분석과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작은 소재에서 커다란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해내는 역사학자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앞으로 학업을 이어갈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3) 장려상

가) 환경공학과 이상규

< 흥미로 시작해 잊은 것을 되돌아본 강연 >

강연을 듣자고 결정한 이유는, 순전히 흥미 본위였다. 수능 선택과목을 이과 계열로 보았고, 대학진학도 공과 대학으로 진학하였기에 요 몇 년간 내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은 모두 그 쪽 계열이었다.

그래서일까. 숫자와 알파벳과 로마자와 수학기호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된, 다른 지식을 접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마침 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강연이 있었고 마침 그 시간이 공강이었기에 참석했다. 그 선택에는 소재가 친숙한 것도 한 몫 했다. 전설의 고향이나 곡성 같은 영상물로도, 무한도전 귀곡성 특집 같은 TV쇼의 소재로도, 자유로 귀신 같이 앞의 두 부류에 비해서는 비교적 전통적인 면모를 보이는 괴담의 모습으로도 자주 나타나는 만큼.

강연에서는 종교적, 학문적으로 귀신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귀신의 모습과 언행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듯 다른 한중일 3국의 귀신관과 함께 무당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웠다. 일종의 정신병이거나 환각 비슷한 정도로 생각했던, 귀신이 실제로 있다면 진짜로 신내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무당의 신내림이 조선시대 특유의 남녀차별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핑계의 역할로도 기능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귀신을 그저 문화적 환상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그에 개입하는 능동적 존재로 보았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귀신을 그저 공포영화 같은 창작물의 소재 정도로 생각해 왔던 나로서는 상상하지 못 한 관점이었기에.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나라의 전통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구한말에 있었던 열강의 침략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숨 돌리기도 전에 터진 6.25 등의 사건으로 잊혀지거나 사라진 유산이 많다고 하니 우리의 전통 귀신에 대한 것도 그 난리통에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강연 내용 외적으로는, 시작은 비록 흥미 위주였지만 그 끝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되돌아볼 계기였다.

물론 그게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조상의 얼,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 경우에는 조금 소박한 것이었다.

어릴 적 무서워했던 그리고 즐거워했던 추억, 그리고 그 때의 감정 그 자체. 하루하루 공부와 과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내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강연이었다.

요 몇 년 들어 갑자기 TV에서 귀신 이야기가 뚝 끊긴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감정을 닫고 그저 살아가기만 하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나) 사학과 조영진

< 작은 인문풍이 큰 돌풍을 일으키기를 바라며 >

10월 4일 화요일, 도서관에서 평소 존경하던 우리 과 서영대 교수님의 특강이 있다하여 강의 시작한 시간 전부터 앞줄을 지키고 앉았다. 한국 고대 종교문화사의 일인자이신 만큼 그에 걸맞게 '한국인의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주제를 선정하셨는데 다른 데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주제라 그런지 다른 학우들의 참석도 돋보였다. 개인적으로 서영대 교수님은 인문학 특강의 첫 강사로 적합한 분이라고 본다. 인문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사학 전공이시고 우리나라 역사의 시발점인 단군 연구의 일인자로서 '시작', '기원' 등의 말과 참 잘 어울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재치 있는 분이신데 소개를 받으시고 겸손한 유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신 후 머리말로 들어가 고대 로마의 속담을 소개하시며 죽음과 내세관에 대한 이야기로 물꼬를 트셨다. 필자는 서론이 끝날 때 쯤 강의록을 보고 놀랐다. 서양의 임사 체험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야기를 전개하셨기 때문이다. 한국사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에만 머무르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듯했다. 사실 강의의 주제가 논란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뭇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본론 초반에서 귀신을 문화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귀신에 대해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시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셨고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장(場)의 가능성을 조성하셨다. 인문학의 핵심적인 원동력 중 하나는 다양한 주장, 관점이다. 귀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실 때 느껴진 것인데 선생님께서는 강의 전반에 걸쳐 본인의 주장,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언급하시지 않고 다른 주장들까지 소개해주셨다. 귀신의 개념을 이야기하실 때도 Ghost의 의미, Spirit의 의미, 주자학의 관점에서의 귀신 개념 등을 그 개념이 생소한 대부분의 학우들 눈높이에 맞추어 농담도 섞으시며 소개해주셨다.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귀신관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한, 중, 일의 귀신들의 여러 특징들을 비교, 대조하시고, 때로는 역사적인 시각으로 귀신 관념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시면서 한국의 귀신관의 특성을 논하셨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귀신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사학도로서 다양한 사료를 폭넓게 읽어야함 또한 현장에서 배운 셈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묵자의 견해를 예로 선정하시며 기능론적으로 귀신에 대해 논하시며 강의를 마치셨다. 물론 맞는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본론에서 말씀하신 역사적인 변천과정 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귀신 이야기가 역사적인 문화 접변 과정을 나타낸다거나, 생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므로 그 이야기 저변에 있는 사회, 문화적 세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의견을 더 부각시키시거나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인문학을 함에 있어 어떻게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제언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몇 달 전 알파고가 인간 바둑 기사를 이겼던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비인간적인 부분은 그렇게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들이 발전한다 해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두 가지 분야가 있다고 한다. 바로 인문학과 예술이 그것들이다. 도서관에서 이러한 인문학 강좌를 시작한 것은 미래를 내다본 처사라 생각하고 인문학도로서 기쁘기 그지없다. 다만, 일회성이 짙은 특강 형식으로는 인문 역량을 늘리는 데에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 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러한 인문풍(風)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짤막하게 글을 마친다.

다) 사학과 최윤하

< 귀신에 대한 시야를 넓히며 >

교내 홍보물, sms, 지인의 소개 등 다양한 경로로 'book새통,인문학강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

었다. book새통 행사라는 것이 낯설었고, 혹여 지루하지 않을까란 걱정에 처음에는 행사 참여를 망설였지만, '우리나라의 귀신 이야기'라는 강좌의 부제목이 눈길을 사로잡아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참여한 행사, 강좌를 듣고 난 후에는 행사 참여를 고민했다는 것이 후회되었다. 고민 속 참여한 행사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강의의 주제가 매우 흥미로웠다. 본래 '귀신'이야기라 하면 흔히 구설로 전해지는 이야기, 과학적이지 못한 이야기, 흥미유발을 위한 컨텐츠 등의 이미지를 떠올렸었다. 하지만 귀신의 개념을 규명하고, 사회구조와 연관하여 이해하고, 귀신 관념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보는 등 '귀신'에 대해 강의를 통해 학술적으로 접근해보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귀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특히, 처녀귀신이 다른 귀신들보다 더욱 무서운 이유가 조선시대, 여성들이 억압되고 핍박받던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인상깊었다. 또한, 알지못했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장군인 맥아더 장군을 모시는 무당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다.

둘째로, 강좌가 끝난 후 학생들이 강연자분께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점이 좋았다.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은 중,고등학교에서 접할 수 없던 적극적 참여가 제공된 느낌이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강연 주제에 관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고,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쉽게도, 이 질문시간을 잘 활용하지는 못하였지만, 의미있고 귀중한 시간이므로 다음 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강좌에 참여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해당 학문에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강좌가 구성되어 더욱 재밌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강의시간 또한 장시간이 아니라 더욱 집중력을 발휘되었다.

처음 참여해본 'book새통,인문학강좌', 흥미로운 강연주제, 청중이 참여할수 있는 시간, 좋은 구성으로 정말 즐겁게 참여하였다. 단편적으로 생각해왔던 귀신에 대하여 다각적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 더 확장된 느낌또한 들었다. 다음에도 이러한 행사가 또 개최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 행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다른 학우들도 참여하여 의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라) 한국학과 방문문

< 한 없도록 살자 >

고대 로마의 속담에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점이며, 가장 불확실한 것은 죽음이 닥치는 시기' 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 말처럼 사람이 누구나 죽을 것인데 누구나 자신이 언제 죽게 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죽을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유감이 없이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대로의 많은 일을 해 보지 못하고 유감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한국에서 한(恨)을 품고 죽게 된다고도 한다. 한(恨)은 마음이란 글자(忄)와 뿌리를 뜻하는 글자(艮)가 합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지 못하고 맺힌 것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사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소홀히 하고 직장 일에 너무 무리해서 과로로 죽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직업이나 학업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죽게 된다면 인생에 많은 한을 남길 밖에 없다.

이런저런 한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서양의 흡혈귀, 중국의 강시(僵尸), 일본의 오니, 한국의 처녀귀신 손각씨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한국의 손각씨가 제일 무서운 귀신이다. 한국의 전통사회는 남존여비 사회이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낮았다. 여성이 자신을 드러내는 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은 혼인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혼 여성일수록 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맺힌 한을 풀려 하기 위해서 무서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런데 죽은 후의 귀신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획인하지 않는 일이다. 가령 죽은 후에 귀신이 될 수 있더라도 사람에게 무척 무섭게 하는데 한을 풀릴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며칠 전에 어떤 강연 프로그램에서 26 살의 여자가 자신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일주일 전에도 생생하게 이 무대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고 강연 끝난 후 여기저기 출장도 했는데 갑자기 생리통 때문에 입원하고 난소암이 걸렸다는 검사결과를 받았다. 그녀의 눈물 겨운 정경을 통해서 이 결과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짐작할 수 있다. 평소에 직장 일만에 몰두하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후회막급이다. 가장 좋은 시절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대로 죽으면 정말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강연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평소에도 반드시 건강을 중요시하고 사랑한다면 고백하고 하고 싶은 일은 해라는 것이다.

인생이란 긴다면 길지만 짧다면 정말 짧다. 왜냐하면 일상적 보인 하루하루는 죽음이 언제 다가오는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살아 있을 때에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한 없이 살지 않을까? 한 없이 살려면 두 가지 조건만 필요하다. 첫 번째는 건강한 몸이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것은 누구도 잘 아는 것이지만 몸이 확실히 아플 때까지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둘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은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용기를 내어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는 마음이 나지만 걱정이나 두려움 등 심리 장애물 때문에 생각은 생각에만 그친다. 항상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일은 내일에 미루고 또 내일에 미루면 언제나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사랑한다면 고백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도전해라.

인생이 정말 짧다. 자신과 생활을 사랑하고 한 없도록 살자.

마) 다문화학 피루자

< 한국인의 죽음 이후에 세계: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 >

오늘 서영대 교수님의 '한국인의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나라의 귀신 이야기' 라는 강연을 귀 기울여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외국인으로서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니 너무 재미있고 한국 사람들의 귀신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귀신을 주로

음양설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익의《성호사설을 보면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귀는 음지령이고, 신은 양지령이라 하였습니다. 즉, 생물을 구성하는 본질은 음과 양의 두 기이며, 이 두 기의 영이 그 생물에서 떠나는 경우에 혼 ··백 ··정 ··신 또는 귀신이 되고, 이들 혼백 및 귀신의 존재 기간은 장단이 있어 영구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귀신의 성정에 대하여 사람과 같이 지각이 있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등장하며, 귀신은 원래 기이므로 들어가지 못 하는 곳이 없고 목석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귀신은 본래 사람을 현혹하는 일에 흥미가 있어 괴상한 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귀신 이야기는 물론 있습니다. 한국의 귀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을 두고 청춘에 세상을 떠난 미명혼도 있고, 총각이 죽어서 된 몽달귀신이 있는가 하면, 처녀가 죽어서 된 손각씨(손말명)가 있습니다. 한국 귀신 이야기들에 대한 더 알고 싶어서 우리 연구실 한국 사람들에게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박사님은 학교 귀신(빨간 휴지 파란 휴지), 물귀신, 거울 귀신과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원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님의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한국 친구가 한국 귀신 종류가 여라 가지 있다고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파일에서 나온 한국 귀신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도(3세 미만의 말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어린 아이들의 죽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도깨비(산에서 도적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무사들의 원령).

콩콩귀신(거꾸로 뛰는 물구나무 자세로 뛰는 귀신이다).

구미호(꼬리 아홉 달린 여우로, 여자 귀신과 여우귀신이 합쳐진 원령이다).

동자동녀(주로 무당의 몸을 빌려서 나타나는 해동을 보면 어린아이의 말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몽달귀신=삼태귀신(총각이 장가를 들지 못 하고 미혼인 채로 죽으면 몽달귀신이 된다고 믿고 있다).

처녀귀신=왕신(손각시, 손말명이라고 도합니다. 귀신 중에서 제일 악독하고 무서운 귀신입니다).

선관도사(대체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살다가 떠나게 되면 그렇게 집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한이 남은 영혼은 이렇게 선관도 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무녀의 몸에 실려서 남의 길흉사를 예언해 주고 호구지책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녀의 집에는 선관이라고 하는 글이 붙어있는데, 결혼을 하고 죽으면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선녀부인(선녀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다면 일단 자녀를 둔 선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도사(주로 산신도 사라거나 계룡산도 사라거나 뭔가 앞에 이름을 붙인 다음에 뒤에도 사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는 무녀의 집에서는 할아버지의 영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살(대체로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세를 하는 할머니 귀신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아귀(굶주린 귀신입니다. 불교에 육도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생전의 업을 따라 여섯 가지 중 하

나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천상계, 아수라, 인간, 짐승, 아귀, 지옥이 있습니다).

터귀신(보통 건축물을 수호하는 귀신이 각각 있습니다. 그 귀신은 어떤 조건에서 한 번씩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걸귀(걸귀는 빌어먹다 죽은 자의 귀신으로 숙주인 사람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면 한이 풀려 그 사람 몸에서 떠납니다).

쪽박귀신(걸귀의 한 종류, 시어머니에게 구박 받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해 굶어 죽은 며느리가 밤마다 집 부엌에 나타나 울어댑니다).

어덕서니(도깨비과 정령으로 원을 품고 귀신이 된 통상적인 귀신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일종의 괴물인 셈입니다. 컴컴한 길에 갑자기 나타나며 사람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커집니다. 대응 방법은 그냥 외면하고 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어덕서니는 사람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동티귀(제사상이나 신주를 흩뜨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면 동티귀의 표적이 됩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공격을 받는데, 어린이들의 꿈에 나타나 동티귀가 괴롭힙니다).

달걀귀신(달걀귀신은 머리카락하고 얼굴 모양새만 있고 눈코 입은 없는 귀신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귀신은 제사지 내 줄 자손이 없어 한을 품은 귀신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달걀귀신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덤귀 (무덤귀는 무덤에서 스스로 나타나는 귀신을 말합니다.)

나무귀신(깊은 산속이 나인 적이 없는 길가에 있는 귀신나무를 말합니다. 공연히 이 나무를 건드렸다가는 크게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령이나 악귀는 향나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향나무 오래되면 될수록 뒤 틀리거나 괴상한 형태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향나무를 귀신 붙은 나무로 칭한 모양입니다. 향나무의 향이 악귀를 몰아내는 역할을 해서 보통 신령이 붙지만 풍수가 잘 못 되어있으면 거꾸로 악귀들이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물귀신(물귀신은 이름 그대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원귀가 된 것을 말합니다. 물가에 있는 사람이나 물에서 헤엄치는 사람을 끌어들여 죽입니다).

상사귀(일종의 스토커 귀신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에게 고백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다 죽은 귀신입니다).

무자귀(무주 귀라고도 합니다. 자손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 줄 사람이 없어, 망령이 위안을 받지 못 하고 고독과 불만 속에서 지내게 되므로, 이러한 영혼은 원귀가 돼, 온갖 심술궂은 가해행위를 자행한다고 여겼습니다.)

미명귀 (남편에게 못다 한 미련 때문에 후처에게 붙어서 괴롭힌다고 합니다).

한국에 귀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한국 귀신 이야기들은 들은 후에 우즈벡 친구들

이 자기 나라 귀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몇 개 있었고 이들은 뱀 귀신과 나비 귀신 (죽은 사람들의 신이 동물 몸에 이입함)이었습니다. 다른 러시아 친구는 러시아에서 집 귀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예시로 자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해 봤어요. 우리 아빠는 항상 집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인사를 해요. 어렸을 때 왜 인사를 하셨는지 이해 못했는데 성장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빠의 말에 의하면 나쁜 집 귀신도 있고 좋은 귀신도 있대요. 집 주인의 행동의 따라 귀신도 달라진대요. 우리 집에서 가끔 물건들이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아빠는 집 귀신에게 밥을 주면 물건들이 없어지지 않다고 했었어요. 저도 아빠 말을 잘 듣고 제 책상위에 한 잔 물과 과자를 놓아보면 며칠 후에 물건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아직까지 방귀신이나 집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옐레나, 러시아).

생각해보니 각 나라의 귀신 이야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양 귀신을 대표하는 것은 흡혈귀 뱀파이어(vampire)입니다. 이것은 밤에 무덤에서 나와 살아 있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악귀입니다. 중국의 귀신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강시입니다. 강시란 Zombie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성화 등에 등장하는 유령은 주로 유부녀들입니다(남편의 재혼을 질투해서 출현했다는 등).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귀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귀신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무귀신 (무화과나무 밑에서 자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고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자귀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귀신입니다. 사실은 귀신 이야기들보다는 미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40일이 될 때까지 밤에 아이와 밖에 나가면 안 되고 나가는 경우에 아이 옷 속에 빵을 넣어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귀들이 쉽게 아이 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미신이 있습니다. 밤에 나무 밑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은 미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귀신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신념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밤에 써서 이제 어떻게 잘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귀신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4. ‘밤샘독서’ 심사후기 / 우수학생후기

가. ‘밤샘독서' 심사후기

종이 책의 운명을 걱정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밤을 밝혀 책을 읽고 글을 썼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신선하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은 어쩌면 지나간 세대들의 기우일지도 모르겠다.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소설부터 에세이, 사학, 철학, 사회과학 도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책을 선택했고, 그 넓이만큼이나 깊은 사유를 각자의 글에서 보여주었다.

짧고도 긴 다양한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책(앎과 삶)을 향한 학생들의 진지함을 읽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독서가 아니라 책과 대화하고 자신의 독법으로 책을 읽는, 적극적인 독서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무비판적으로 책의 내용을 수용하기 보다는 텍스트를 존중하되, 자신만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질문하는 쌍방향적 독서의 결과물인 생산적인 글들이 많았다.

최우수상으로 뽑힌 백연진 학생의 글 역시 루소의『에밀』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교육’이라는 현재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글이다. 고전의 현재적 가치를 잘 살린 독법과 그에 걸맞은 글이라 생각되어 주저 없이 최우수상으로 뽑았다. 이번에 상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글도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을 보여주었다. 응모자들의 글에서 우리 시대를 짊어지고 갈 지성의 저력을 느낄 수 있어서 기쁘고 든든했다. 이제 곧 방학이다. 영혼을 살찌우는 책과, 도서관과 함께 하는 겨울방학을 보낸다면 다가올 봄을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프런티어학부 송수연

나. '밤샘독서' 우수학생후기

1) 최우수상 : 신소재공학 백연진 (에밀)

< ‘에밀’을 통해 바라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

최근 KBS의 시사프로그램인 ‘명견만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내용의 방송을 보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제품이 지능을 갖게 되며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학습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화 방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곧 인간의 많은 영역을 또 다시 기계에게 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편리함을 누리게 되지만, 그 동시에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은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에밀>은 여러 측면에서 혁명적인 자연주의 교육서이다. 교육의 목적을 그 당시의 시각과 다르게

본 점과, 당시 교육자들이 어린이를 '작은 어른'으로 파악했던 것과 달리 인생의 성장 각 단계에 나름의 가치를 부여한 점이 놀라웠다. 한편으로는 1700년대에 쓰여진 교육서를 읽으면서 현재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감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에밀>에서는 인간의 성장을 5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말한다. 각 성장 단계별로 교육의 목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 내용에서 루소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교육'이란 기존 사회의 가치관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이 가진 자연적 본성을 개발을 통해 각자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에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해결책을 고민했다. 인간이 새로운 기술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지금,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찾고자 한 루소의 교육 철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크게 세 가지 교육 철학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현재의 교육에 적용해봤다.

첫째, 우리의 내부에서 각자의 존재를 배워 나가는 것

"남을 통해서 자신을 배우고, 때로는 최후의 순간에야 자기를 알고,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전혀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이 자연의 뜻일까? 오, 인간이여! 당신의 존재를 자신의 내부에만 국한시켜라. 그러면 당신은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외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배워나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개인이기 이전에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왔다. 위 구절을 읽으며, 청년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내부를 보지 않는 교육'에 익숙했기에 변화에 대한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우리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의 질서에 맞는 교육을 성실히 받아왔다. 그러나 저성장, 고용불안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외부적인 변화와 문제들은 이전의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 루소가 말했듯이 항상 변하는 현실 속에서 사회의 질서와 지위에 맞는 교육이란 무의미하다. 루소는 "자연의 질서 내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모든 사람의 천직은 인간 그대로의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갈수록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외부에서 무언가를 학습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아이가 가진 생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아이에게 좋은 일이란, 그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다. 언제나 아이의 지식보다 앞선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당신들은, 아이에게 쓸모없는 도구를 줌으로써 그들에게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도구인 양식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기계로 길들이고 있다. 당신들은 아이가 순종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그가 성장해서 쉽게 속는 인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또한 루소는 어린이에게 그에 맞지 않는 관념적 단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 책이나 우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서 이 우려가 조금은 과도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정도였다. 그만큼 루소는 '어른의 관념과 지식'이 어린이에게 학습되는 것은 자연적 본성을 파괴하기 쉽다고 생각했다. 한국은 조기 교육 열풍이 하나의 산업을 이룰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다. 루소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절망적인 풍경이다. 물론 조기교육의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루소의 주장대로 아이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탐구하지 못하는데 가르친 지식은 아이들에게 쓸모없는 도구를 줌으로써 그들의 가능성을 스스로 베어버리게 한다.

"아이가 배워야 할 것을 당신이 제시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기 바란다. 아이 스스로가 그것을 요구하고, 추구하고, 발견해야 한다. 아이 스스로가 그것을 요구하고, 추구하고, 발견해야 한다. 당신은 그것을 그의 손에 닿는곳에 놓아 배우려는 욕구를 자극하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단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된다."

한국은 줄곧 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항상 마음이 급하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이를 따라가려면 세상의 속도를 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나는 <에밀>을 통해 조금은 답을 본 것 같다. 그들은 누군가 제시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가졌던 자연적인 본성처럼, 그저 무언가 스스로 요구하고, 추구하고, 발견했기에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가 가진 생각의 자유를 묶어버린 채, 외부를 바라보는데 혈안이 되어오는 교육만 쫓아왔다. 이제는 그 묶어버린 자유를 풀어주고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셋째, 각 성장 시기에 맞는 의미를 부여할 것

"당신의 제자에게 한 마디 말을 하기 전에, 그를 충분히 관찰하라. 무엇보다도 그의 성격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자유롭게 놔두라. 그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 어떤 것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유익하게 쓰여진 시간이 될 것이다."

<에밀>은 인생의 각 단계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교육은 각 단계가 갖는 가치를 최대한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위해 살아온 것 같다. 우리의 교육은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현재에 대한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도록 가르쳤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질문 없이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자라도록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야할 학창시절의 많은 부분은 경쟁과 입시의 부담감으로 채워져 있다.

"한 인간을 언젠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희망 때문에 현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 구절을 읽으며 지금도 어디선가 공부하고 있을 수많은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우리의 자연성을 포기한 채 공공 교육이 주장하는 목표를 향해 의심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서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따라가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OECD 청소년 자살률 1위의 타이틀은 나약한 청소년이 만든 것이 아니다. 각 성장 시기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미래의 목표만을 바라보게 하는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 낸 것이다. 성장 시기의 '나'의 의미를 모두 무시한 채, 미래의 결과 그것도 '표면적'인 결과에 집중했기에 만들어진 문제이다. 루소의 주장대로 각 성장 시기는 그 시기에 맞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교육은 미래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현재의 나'에 초점을 둬야한다.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좋은 교육'에 대한 고민이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 책을 골랐던 이유도 좋은 교육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우리는 모두가 정해진 교육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졸업한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변화하는 미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어른'으로 성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산다는 말은 숨을 쉰다는 뜻이 아니라 활동한다는 뜻이다. 가장 잘 산 사람이란 가장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 가장 잘 체험한 사람이다."

산다는 것은 활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 준비가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생에 마지막에 섰을 때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의 변화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 교육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연성과 개성의 회복이 중심이 돼야한다. 나는 이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에밀의 자연주의 교육 철학이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2) 우수상

가) 생명과학 나병호 (멋진 신세계)

< 멋진 신세계가 던지는 질문들 >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5번째 읽는 책이다. 또한, 영문판을 찾아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 책이다.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책은 자신을 읽으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밤샘 독서라는 내 생애 단 한번 있는 순간에 망설임 없이 이 책을 선택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좋은 책이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훌륭한 책에는 공통점이 있다. 훌륭한 책은 스쳐 지나갔던 중요한 문제를 상기시켜 준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생각했던 꿈에 대해 상기시켜 주거나,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멋진 신세계는 다방면의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멋진 신세계가 내게 했던 질문은 매번 달랐다. 책의 넘기자 헉슬리는 내게 말했다.

"내가 생각한 유토피아는 다음과 같다. 당신의 유토피아란 무엇인가?"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에서 유토피아를 세밀하게 묘사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유토피아를 책 속에 비춰 보았다. 그의 유토피아와 나의 유토피아는 달랐다. 그는 유토피아를 완벽히 통제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표현했다. 반면에 나의 유토피아는 자신을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유토피아는 헉슬리의 말이 옳았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통제가 필요했다. 그의 논리에 나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헉슬리가 말한 유토피아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처음 책을 읽을 때, 책이 내게 물은 것은 '행복은 무엇인가'였다. 주인공 존은 야만인 보존 구역에서 살았다. 야만인 보존 구역이란, 멋진 신세계라는 유토피아와 반대로 원시 문화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그들은 종교를 믿고, 병마에 시달리고 비위생적이었지만 행복했다. 존은 그곳에서 구출되어 멋진 신세계로 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구출이 아니었다. 그는 금세 멋진 신세계의 모순점에 부딪힌다. 이곳에서 그는 절대 불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걱정하고 고통에 시달릴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세계의 관리자에게 말했다. 그는 관리자에게 불행할 권리를 달라고 외쳤다. 작가

는 존을 통해 내게 물었다.

"불행이 없는 행복이 있는가?"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다. 불행할 권리는 없다. 인간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그러나 존이 말한 불행은 달랐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필히 마주치는 역경이다. 병에 걸리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걱정하는 것. 그것들은 인간의 삶에 필히 존재하는 고통이었다. 그것이 박탈된 것은 행복이 아니라고 작가는 외치는 것 같았다. 마틴 포드의 <로봇의 부상>에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감정이 있는 로봇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감정을 가진 로봇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고통이다. 끔찍한 외로움의 고통을 겪지 못한 로봇은 절대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추위를 겪지 못한 사람이 따뜻함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불행은 행복이란 꽃을 받치는 꽃받침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불행이 사라진 사회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의 답을 만들었다.

책에게 받은 두 번째 받은 질문은 세뇌에 대한 질문이었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아기의 아이들을 세뇌 시켰다. 가령,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자 하면, 책을 건들었을 때 마약과 같은 증기를 뿌렸다. 반면에, 꽃을 싫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 충격을 주었다. 그것을 보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고민했다. 나 역시 자극에 의해 생긴 고정관념이란 것을 통해 움직였다. 그 후부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

세 번째 질문은 책에서 나오는 소마였다. 책 속에서 소마는 불안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이것을 먹으면 모든 불안에서 해방된다. 약을 통해 외로움과 불안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살펴보니 내 옆에도 소마가 있었다. 스마트 폰이었다. 그것을 보면 불안한 마음은 사라졌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스마트 폰을 없애자는 결단이었다. 스마트 폰 대신 책을 들었다. 우리는 불안하기에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스마트 폰을 버리고 책을 잡았다. 회피하기보다는 맞서 싸우고 싶었다.

네 번째 질문은 사회에 대한 질문이었다. 11월 초에 읽은 책은 국정농단으로 인해 시위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1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하야를 외쳤다. 그곳에는 나도 있었다. 책은 나에게 물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은 맞아. 그렇다면 너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을 외쳤지만, 정작 내가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는 몰랐다. 고민 끝에 내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도시 공동체였다. 나는 아나키스트처럼 살고 싶다. 헉슬리의 세계관은 내 세계관을 이루는 씨앗이 되었다.

5번째 마주한 오늘, 책은 내게 묻지 않았다. 그러나 책은 거울처럼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비춰주었다. 지금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밤샘 독서를 하고 있다. 밖에 있는 누군가는 호화로운 호텔에서 매력적인 여성과 값비싼 술을 마시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가 사는 곳은 멋진 신세계이고, 내가 있는 곳은 원시인 보호 구역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나보다 행복할까? 아니다. 내가 만약에 그처럼 값비싼 술을 먹는다고 하여도 지금의 나처럼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밤과 새벽의 균열 속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것. 이는 천국을 체험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다.

헉슬리는 회의적인 말로 스토리를 진행하고, 비극적인 결말로 이야기를 마쳤다. 그러나 그는 책 속에 사후약방문을 남겼다. 책 속의 인물들은 문학에 관해 계속 이야기한다. 책은 희망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토피아는 밤샘 독서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온전히 책을 읽으며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유토피아로 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1박 2일이었지만 유토피아를 만들어준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나) 국어교육과 김자혜 (멋진 신세계)

<<멋진 신세계>>는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며 섬뜩함에 여러 번 책을 덮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다. 작가가 600년 뒤를 상정하며 그린 이 우울하고 적나라한 미래상은 고작 100년이 지난 지금, 이미 상당히 현실로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다.

<<멋진 신세계>>의 미래는 예수의 탄생이 아닌, 포드가 자동차를 내놓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포드를 우상시하는 이 세계에서는 더 이상 가족도, 신도, 생명에 대한 존경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역할을 결정하고, 그 역할에 맞게 자라도록 인공적으로 난자 및 태아를 조정하여 부화시킨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알파, 베타 등 그들의 역할에 맞게 수면 교육과 행동 조절 교육을 행한다. 동일성과 안정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는 남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오직 행복만을 추구한다. 그리고 행복을 위한, 혹은 행복을 위해서라고 '믿고' 있는 자극적인 쾌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예방한다. 소설은 이 인공적이고 안정적인, 그래서 더 비인간적인 미래와 이 사회에 들어온 외부의 '야만인', 존에 대해 그린다.

신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존재하며 고독을 멀리한다. 가정도 부모도 없이 그저 모두 함께 서로를 소유하며 쾌락을 즐긴다. 불행을 모르며 그들의 삶은 오직 행복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행복하다고 배워 왔다. 레니나의 "오늘의 즐거움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 그 가치관을 잘 보여 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다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보다는 현재만을 바라보며 현재를 즐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물론 신세계와는 그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신세계는 사회의 안정을 목적으로 그러한 세뇌를 진행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불행을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불행을 겪고서야 그 반동으로 쾌락과 현재에 집중하는 세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쾌락을 강조하는 신세계의 가치관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소설은 상당히 극단적이지만 분명 우리의 사회가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한 가지, 불행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을 알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굳이 레니나와 헨리 등이 "누구나 다 행복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는 것을 언급한 이유도 그에 있지 않을까? 그들은 진실로 행복하다기보다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게 만들어진 것이다.

독재 정권은 스포츠를 크게 발전시켰다고 한다. 국민들이 오락에 빠져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 옛날 일본은 사회 및 정부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 향락 산업을 사회 곳곳에 심어 두었다고 했다. 소설 속 신세계도 그와 비슷한 세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와 향락 산업을 일으킨 정부의 속셈을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의심해 왔기 때문이다. 그처럼 신세계에도 사회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 수면 교육과 행동 조절 교육을 통해 세뇌를 당해도 남들과는 다른, 일괄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세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파로서, 베타로서, 혹은 엡실론으로서 살도록 행동조절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 버나드와 헬름홀츠가 그렇다. 버나드는 신체의 결함에 의해 고독하고 헬름홀츠는 지나치게 뛰어나서 고독하다. 그들은 레니나로 대변되는 신세계의 많은 사람들처럼 모두와 같은 생각만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위험분자로 취급받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끝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며 존과 연을 맺는다. 신세계 사람들 다수가 존을 그저 구경거리고 취급한 것을 생각할 때, 존과 인간적으로 교감한 두 사람의 의식은 확실히 특별하다. 이들의 존재는 어쩌면 문명화가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수면교육을 하고 행동을 조절해도, 결국 '인간으로서의 인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이다. 실제로 버나드와 헬름홀츠는 굉장히 인간적이다. 버나드는 존을 이용하려고 하면서도 그에게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세속적으로 자신에게 피해가 갈 일을 피하려 하면서도 그러한 자신에게 환멸을 느낀다. 헬름홀츠는 소위 '된 사람'에 가까운데 그 역시도 무언가 자신만의 것을 표현하고자 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애쓴다. 물론 이들이 작가가 말하는 지향해야 할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쨌든 받은 교육의 여파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버나드가 가장 비참하고 고독했던 것은 남들처럼 포드 님과 융합하지 못 했던 때였으며 헬름홀츠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웃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이들의 '인간적'인 면모는 존에게도 독자에게도 위로가 된다.

여담이지만 버나드를 보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솔직히 말해 나는 버나드의 세속적인 면을 볼 때마다 내심 실망했다. 이 비인간적인 사회에서 다소 벗어난 몇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이고 속물적인 면모를 보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그런 생각을 한 나 자신의 선입견에 대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왜 버나드가 좀 더 비인간적으로 도덕적이기를 바랄까. 분명히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인 사람인데. 어쩌면 나도 흑백논리나 완성적인 인간상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신세계의 부조리를 깨달을 만한 사람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찰력 있고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완성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이다. 수면 교육이나 행동 조절 교육처럼 극단적이지 않을 뿐, 우리 사회도 분명히 국민들에 무의식적으로 심어 두는 가치관이 있으니까.

야만 사회에서 가치관도 삶의 모습도 극단적으로 다른 신세계에 오게 된 존은 결국 그 삶을 자살로 끝맺고 만다. 책을 읽은 후에는 존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자살뿐이라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그는 작가가 이 디스토피아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내놓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시를 사랑하고 인간의 아름다움과 절대적인 것의 가치를 안다. '불편한 것을 좋아하고 신과 시와 현실적인 위험을, 자유와 선과 죄악을, 불행해진 권리를 원한다'는 그의 말은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고작 20년 남짓밖에 살지 않았지만, 존이 원하는 저것이 그야말로 인간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힘들어도 그것은 그것대로 아름다운 법이고, 또한 죄악을 모르면 선을 알 수 없고 불행을 모르면 행복도 모르는 법이지 않은가.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아왔던 그가 말하는 것은 무척이나 강직해서 인상 깊었다. 그가 레니나를 창녀로 몰아세우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할 정도로 금욕적인 것은 내 지향점과 다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멋진 신세계>>에는 그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아주 극단적이다. 존이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인간적인 문명 사회와 존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시 사회뿐이다. 그것이 존에게는 더없는 불행이었다. 그래서 작가도 후에 서문을 통해 그 중간 사회를 선택지로 주었다면 존에게 더 나았을 거라고 언급하지 않았나. 깨달음을 주는 고전이 아닌 재미있는 소설의 캐릭터에 대한 감정으로서 계속 안타까움이 남는다. 하다못해 버나드와 헬름홀츠가 가게 된, 자의식이 많거나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정통적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섬에 그도 함께 갈 수 있었더라면!

그런데 왜 굳이 원시 사회를 제시했을까? 600년 뒤의 완전히 가치관이 바뀐 미래와 대치해야 한다면 현대 사회도 충분히 야만적인 사회로 묘사할 수 있었을 텐데. 게다가 왜 하필 인디언이어야 했을까?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있는데 오직 인디언만을 원시 사회 부족으로 설정하다니. 심지어 소설 속의 인디언들은 폭력적이고 주술적이다. 배타적이기도 하다. 어쩌면 당대 영국인이 인디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드러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책을 처음 읽으면서 한 가지 의아하게 느낀 것은, 이 소설이 그리는 미래가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디스토피아와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많은 영화들이 기계와 과학에 인간이 종속된 미래를 그렸다. 의식을 가지게 된 기계가 인간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반대로 완전히 기계화된 세상에서 인간들이 더 이상 그 어떤 노동도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신세계의 사람들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일한다. 인간이 태어나는 원초적 행위조차 인공적으로 처리하면서 그들은 몸으로 직접 노동을 한다. 게다가 일종의 계급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의 성격이 다를 뿐 알파, 베타 등 모든 계급이 일을 한다. 그 옛날처럼 하위 계급이 상위 계급을 먹여 살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세뇌된 결과물이라고는 하나 자신의 일에 대한 의지와 소명의식도 있다. 문명에 종속된 동시에 문명을 이용한다. 이 아이러니한 세상에 대한 의문은 책을 거의 다 읽어갈 즈음에야 풀렸다. 무스타파 몬드는 존과의 대화에서 과학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함께 말한다. 그리고 하나의 계급만이 있는 세상은 자멸을 가져올 뿐이라며 계급을 만든 당위성을 설명한다. 무서운 것은 무스타파 몬드가 분명한 지식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다른 사람과는 달리 신과 인간의 가치와 문화예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다. 셰익스피어가 촉각영화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 안정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은 일견 그럴 듯하다. 하나의 가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치 중 그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와 존의 대화가 그토록 길었던 것일 테다. 존과 무스타파 몬드의 대화는 아마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와 가장 맞닿아 있을 것이다. 이 비인간적인, 하지만 무척이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디스토피아와 그에 대항하는 인간의 가치. 이 대화를 읽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작게는 한 개인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서부터 크게는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까지. 소설을 읽으며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많은 생각을 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마 책을 덮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즐거운 경험이었다.

3) 장려상

가) 경영학 장지성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울림을 주는 >

슬슬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다. 게다가 요즘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팎의 상황에 심란해져 더 춥다고 느껴진다. 매일 매일 새로운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이것에 대해 각자의 목소리를 낸다.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옹호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슬퍼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한다. 나조차도 그렇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무언가 커다란 벽 같은 것에 막혀 머릿속에만 맴돈다. 그래서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름 모를 공포감에 사로잡혀 나는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이미 경험한 청년이 있었다. 71년 전 더 혹독하고 무서운 시대에 살았던 시인 윤동주이다. 그래서 길고 긴 밤을 지새야할 오늘, 그의 책을 꺼내들기로 마음먹었다.

어둡고 침울한 시대 상황에 국민 모두가 고통스러워 할 때, 시가 가장 잘 씌어지는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실제로 그의 이전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보다 더 마음을 울리는 시 들이 많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다. 그렇게 재능이 꽃피워 가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오히려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담아내었다. 그래서 '자화상'에서는 우물 속에 비친 본인을 미워하고 '돌아와 보는 밤'에서는 가만히 눈을 감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본인을 담아내고 '별 헤는 밤'에서는 이름을 흙으로 덮어 버린다. 적어도 부끄러워 할 줄은 알았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 같으면 회

피하거나 부정하여 합리화했을 것을 부끄러워하며 직시했다. 그래서 그런 윤동주의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나는 부끄러워할 줄은 알고 살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옥죄어 오는 시대적 현실에서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모든 시에서 좌절에 빠지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한 발씩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본인의 다짐을 외치는 '서시', 뒤뜰에 누워 빨리 모든 상황이 해결되었음을 염원하는 '병원', 지금 살아가는 이유를 잔잔히 고백하는 '길' 등 윤동주는 시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 뚜렷하고 확실한 나의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헤쳐 나갈 수 있음을 전달해준다. 시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겹겹이 쌓인 불안함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새벽 내내 좋은 시와 함께한 덕분에 나 자신이 조금은 변화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나) 사학과 김유나 (과학혁명의 구조)

"인간은 스스로 그의 본질을 창조해야 한다. 그것은 그 자신을 세계에 던지고, 그 속에서 시달리며 몸부림치고 그리하여 서서히 그 자신을 정의해 나가는 것이다."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로써 끊임없이 창조를 거듭했으며, 발전을 이루어왔다. 인간은 자신들이 발견해낸 지식들을 후세에 전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말과 글, 그림 등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었으며, 지혜나 전통, 문화 따위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인류는 일련의 결과물들이 적립되어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에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일말의 의심이 없었다.

그러나 토머스 쿤은 1962년 발표한 『과학혁명의 구조』를 통해서 진화에 대한 통념을 뒤집었다. 그에 따르면, 어떠한 것에 있어서 새로운 발견이나 지식들이 쌓이다 보면 패러다임(Paradigm)이라고 하는 통념이 형성된다. 이 패러다임은 매번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며,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공식으로서 자리 잡는다. 이러한 현상을 정상과학이라고 일컫는다. 이처럼 정상과학의 상태에 도달하면,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발견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존에 패러다임을 형성한 세력의 무관심 혹은 비판 속에 묻혀 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이 여럿이면 금도 녹인다는 말처럼,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들이 규합하게 되는 변칙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혁명으로 이어진다. 즉, 발전은 적립이 아니라 전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지이다.

쿤의 주장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인문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과학, 사회, 인문을 별개의 독립된 분야로서 사고하는 잘못에 빠진다. 이에 나는 쿤의 패러다임론을 내가 공부하는 역사학에 대입하여, 보다 생산적인 사고를 해보고자 한다. 과학과 마찬가지로 역사학에서도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또 실제로 존재해왔다. 이는 역사가 가진 특수한 성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역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흔적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과거의 퍼즐들은 역사가들에 의해 복원된다. 이 때 역사가들이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퍼즐을 맞춘다면, 역사는 만들어질 수 없다. 때문에 학자들에 의해 인류의 정신활동 흐름을 어느 정도 규정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과학에서처럼 역사학에서도 학자들은 패러다임을 형성해 왔고, 정상-변칙-혁명이라는 정반합의 과정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줄곧 이어져 왔다.

역사학에서의 패러다임 혁명은 단연 백제 위례성 도읍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위례성은 온조가 백제의 기틀을 닦은 초기 왕성이었다. 고대사의 몇 안 되는 사료에서는 이를 '위례성' 혹은 '하남 위례성'이

라고 표현했다. 이에 학자들은 두 성이 같은 것이며 강 이남에 존재했다는 설과 북쪽과 남쪽에 별개로 존재했다는 설로 의견이 분분했었다. 결국 논의 끝에 전자의 학설이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됐다. 이 패러다임이 정상상태를 형성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다른 학설과 모순들은 무시되었다. 그러던 중 풍납, 몽촌토성이 대홍수로 발견되고 연구되며 비로소 패러다임이 후자로 교체되었다. 풍납토성은 실질적인 왕성이었고, 몽촌토성은 왕족의 거주지이자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왕성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었다.

패러다임은 과학사 연구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흔하게 쓰이는 용어 중 하나가 되었다. 통념, 고정관념, 기존의 틀, 사고과정 등 그 용례가 다양해 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이를 활용해 보면, 오늘 진행한 밤샘독서 프로그램 역시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처럼 토머스 쿤의 패러다임론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융·복합형 인재가 추구되는 오늘날, 『과학혁명의 구조』를 일독 후 자신의 분야에 맞게 적용해 보기를 권한다.

다) 경제학과 이상우 (총, 균, 쇠)

< 대륙의 축으로 돈 역사의 수레바퀴 >

저자는 왜 각 대륙들 마다 문명의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을 각 대륙들마다의 주요 축으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남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주요 축은 남북 방향이다. 남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유라시아의 주요 축은 동서방향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유라시아 대륙에 분포해 있고, 과거에 문명들도 그곳에서 시작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대륙의 축으로 인한 차이점들을 저자는 설명한다.

문명의 첫 시작은 식량에서부터 기원한다. 그러한 식량 생산 전파의 주요 경로를 살펴보면 그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른 경우는 유라시아 대륙과 같은 동서 축 방향이었다. 동서 축 방향으로의 시속은 1년에 빠르면 5.2km(필리핀에서 동쪽 폴리네시아)였으나 남북 축 방향으로의 시속은 빨라야 0.8km 이하였고(멕시코에서 북쪽 미국 서남부에 전파된 속도) 심지어는 0.5km 이하(멕시코에서 미국 동부까지 옥수수, 누에콩이 확보되기까지),0.3km(페루의 리마가 에콰도르에 전파된 속도)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식량 전파 속도와 시기의 차이로 인해 각 대륙별로 발생한 문명의 속도와 시기가 차이가 난 것이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풍부하게 충족되어야 문자, 기술, 제도 등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문명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선사 시대에 널리 퍼진 농작물이 한 지역에서 개발되었는지 혹은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식량 전파가 빠르게 되기 위해서는 식물의 작물화가 단 1회로 그치는 것이 좋다는 점이 왜인지 이해가 안갔는데 두꺼운 책 페이지를 넘길적 마다 그 이유가 충분히 잘 설명됐다. 왜냐하면 동일한 식물을 독립적으로 다시 작물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야생 조상이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 되었다면 그 농작물은 전파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른 곳에서 새로 작물화 되는 것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추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남아시아에서는 작물화가 대개 1회로 끝났고 남북아메리카에서는 여러 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동서 방향의 대륙 축이 남북 방향의 대륙 축 보다 훨씬 전파되기가 용이했다는 것을 역사가 입증해준다.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식량 생산 전파의 근원지이자 문명의 근원지였다. 그 곳에서부터의 신속한 전파가 남북 대륙과의 문명 차이를 벌어지게 했다. 식량 생산이 처음 시작 된 약

B.C.8000년은 가장 이른 시기였다. 그곳에서부터 유럽, 북아프리카, 인도 등지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스, 인도 등지에 도입 된 것은 B.C.6500년 이전이었고, 이집트는 B.C.6000년 직후, 중부 유럽은 B.C.5400년 이전, 스페인 남부는 B.C.5200년 이전, 영국은 B.C.3500년경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시작하게 만든 가축이나 농장물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식량 생산을 촉발시킨 것과 동일한 것들인 점이 뒷받침 해준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은 신속하게 전파되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안팎에서 동일한 야생 조상이 다시 작물화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두 견제하였다. 그래서 처음 작물화 된 후 다른 곳에서 다시 작물화 되지 않았고 그러는 것이 이점인 이유는 농작물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굳이 야생 식물을 채집하여 작물화를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는 시간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흥미로운 사실을 접하니 4대 문명지를 비롯한 고대 강대국들의 위치가 수긍이 갔다.

유라시아 대륙같이 같은 위도 상에 동서로 늘어서 있는 지역들은 낮의 길이, 계절의 변화가 같다. 그리고 질병, 기온과 강우량의 추이, 생식지나 생물 군계 등도 서로 비슷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남부, 이란 북부, 일본은 모두 위도상의 위치가 같지만 동서 방향으로 많게는 6400km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기후는 남쪽으로 겨우 1600km 떨어진 지역보다도 서로 비슷하다. 식물의 발아, 성장, 질병에 대한 저항력 등은 위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에서부터 시작한 유라시아의 동서 대륙 축이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남북 대륙 축보다 식물, 동물이 잘 자랄 환경인 것이었다. 식량이 빠르게 전파 하는가 안하는가에 관련한 작물화가 1회에 그치는가 독립적으로 여러 번에 걸치는가하는 문제는 위도상의 특징으로 인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위도는 동서 축보다 남북 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대륙의 문명 속도 차이를 대륙 축으로 설명하는 저자의 주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식량, 문자, 기술 등의 문명이 전파 되는데 있어서 가로막는 지형적, 생태적 장애물의 유무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창시 작물은 빠르게 이집트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에티오피아의 고지대까지 전파되었지만 그 너머로는 전파되지 못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중해성 기후는 그 농작물들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었으나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이에 위치한 3200km에 이르는 열대 지역은 이 농작물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이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들이 남쪽으로 전파되는 것도 중단되거나 늦춰졌다. 소, 양, 염소가 마침내 남아프리카에 도착할 수 있었던 시기는 A.D.1년~200년, 즉 이 가축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가축화되고 약 8000년이 흐른 후였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의 거리는 1900km 정도에 불과하다. 멕시코의 고지대와 안데스 산맥도 각각 서로의 농작물 및 가축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실제로 멕시코의 옥수수를 비롯하여 몇 가지 농작물은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상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농작물이나 가축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서 상대 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했다. 멕시코의 서늘한 고지대는 남아메리카의 서늘한 고지대에서 가축화, 작물화 된 라마, 기니피그, 감자 등을 기르는 데 이상적인 환경이었지만 이들 안데스 특산물의 북상은 중간에 위치한 중앙아메리카의 무더운 저지대에 가로막혀 완전히 중단되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 가축화된 칠면조와 미국 동부에서 작물화된 해바라기는 안데스 일대에서도 잘 자랄 수 있었겠지만 이들의 남하는 그 중간에 있는 열대성 기후 때문에 중단되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각 대륙마다 문명의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기후와 관련된 위도와 지형적, 생태적 장애물의 유무였다. 기후와 관련된 위도는 대륙의 남북 축보다 동서 축이 식물, 동물이 자라기에도 적합했으며 식량, 기술, 문자가 전파되기에 수월했다. 지형적, 생태적 장애물의 유무는 동서 축이나 남북 축 대륙 모두 특정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로막혀 시간이 더딘 경우는 다소 예외인 경우로 봐야한다.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을 당시 아메리카는 유럽과 비교해 상당한 미 개척지였고, 따라서 장비의 큰 격차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추지 못한 점들이 스페인이 본국 보다 몇 배나 많은 수, 국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세계사를 공부할 적에 이토록 자세한 이면을 살피지 못하고 단순한 서술

로 접했을 적에 의아하기만 했었는데 총, 균, 쇠를 읽으면서 그 의문점들이 전부 해소됐다. 책 제목대로 총, 균, 쇠라는 3가지 특징점들이 인류 역사를 설명하는 키워드인 셈이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인류학, 문화학, 생물학, 역사학 등등 거의 모든 학문들을 통틀어 풀어낸 이 책은 통섭의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한 권의 책으로 이토록 많은 지식과 통찰력을 안겨주는 책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줬다.

라) 사학과 김성중(총, 균, 쇠)

『총, 균, 쇠』는 질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연쇄적으로 규명해나가는 책이다.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프롤로그에서 얄리라는 뉴기니인이 던진 질문을 소개한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저자는 이 질문을 듣고 나아가 현대 세계에 존재하는 거대한 규모의 현저한 불균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가 보기에 현재 세계는 유라시아에서 발원한 여러 민족, 특히 아직도 유럽과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북아메리카로 이주한 사람들이 부와 힘을 독점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은 비록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부와 힘에 있어서는 여전히 훨씬 뒤처져 있는 상태다. 또 다른 민족들, 가령 오스트레일리아,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단 등의 원주민들은 자기들의 땅을 모조리 빼앗기고 백인 이주민들의 손에 살해되거나 예속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몰살당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불평등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일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 답을 사람에서 찾기보다는 그 사람을 둘러싼 지리적 환경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패권을 장악한 사회와 그들의 지배에 신음해야 했던 사회를 가른 차이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가축화·작물화의 재료인 야생 동식물의 대륙 간 차이이다. 대부분의 야생 동식물은 가축화·작물화에 부적합하여, 식량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종은 소수에 불과하다. 홍적세 말기 멸종에서 살아남아 가축화·작물화가 가능한 종들이 서식했던 지역은 이를 이점삼아 우위에 서게 되었다. 둘째, 대륙 내 확산과 이동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확산과 이동의 속도는 빠를수록 유리한데, 대륙의 방향이 동서방향이고 생태적·지리적 장애물이 적을수록 빠르다. 셋째, 각 대륙 '사이'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어떤 대륙은 고립되어 있거나 생태적·지리적 장애물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혁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넷째, 각 대륙의 면적 및 전체 인구 규모의 차이이다.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 잠재적인 발명가의 수도 많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의 수도 많고, 도입할 수 있는 혁신의 수도 많다는 뜻이다. 상존하는 긴장과 불안이 발전의 촉매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킨 유라시아 대륙이 장기간 축적을 거쳐 현재 세계의 부와 힘을 독점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책의 16장, 17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문화와 이후 중국 문화가 태평양으로 확산해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앞서 서술한 네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저자가 지적하는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은 광활한 면적에 비해 철저히 균일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일성의 단면으로 언어를 들면서 본래 북중국에서는 원래 중국어를 비롯한 중국티베트 어족의 사용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남중국의 다른 어족의 사용자들을 쫓아낸 결과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원동력으로 이른 가축화·작물화, 뛰어난 청동 야금술, 대규모 노동력 동원 등을 꼽으면서 이러한 농업, 기술, 정치적인 면의 우위에 힘입어 일찌감치 중앙집권적 사회를 세울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북중국인들에게 밀려 남중국 해안이나 타이완에서 출발한 이주민, 이른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태평양으로 향했다. 이들은 북중국인들에 비해서는 낙후되었지만, 열대 동남아시아인들보다는 인구가 훨씬 조밀했고, 도구와 무기가 우수했으며, 발전된 배와 해상기술을 가졌다. 그 결과 토착민들의 유전자와 언어를 지워버리고, 그들이 열대 동남아시아를 차지하게 되었다. 저자는 언어학적, 고고학적 증거를 들면서 남중국-타이완-필리핀 및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스트로

네시아인의 팽창이 가로막힌 지역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뉴기니이다. 유전적으로 비슷할 터인데, 상반된 결과를 낳은 이유는 뉴기니인들이 오스트로네시아인에 견줄만한 기술 수준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16장과 17장에서 보이듯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도입부에서 제시한 질문을 시종일관 우직하게 끌고 오면서 전지구적으로 자신의 통찰을 적용해나간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은 특이한 위치에 놓인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제시한 지리적 환경만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은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그리하여 중국문화는 충분히 태평양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중국 역시 서구 열강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에필로그에서 밝히고 있다. 중국이 만성적인 통일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발상 간의 경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항상 분열됐던 유럽에 기술의 선도자 위치를 빼앗겼다고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라는 특정 지역이 반례가 될 수도 있었지만, 매끄럽게 자신의 논리 안에 편입했다는 인상이다.

『총, 균, 쇠』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주요한 이유가 인종주의적 편견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책의 논지에 따르면 현재 세계의 부와 힘의 독점, 극단적인 불평등은 오로지 우연에 기인한 것이다. 유라시아 인들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유라시아 대륙이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의 우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우위는 유라시아(인)의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서구 중심의 역사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상식의 전복을 자극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제목이『가축화, 작물화』,『유라시아의 힘』,『대륙 간 지리적 차이』따위가 아니라『총, 균, 쇠』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총과 균과 쇠는 서로 다른 대륙 간 기술 격차가 현저한 상태에서 어느 한 쪽으로의 진출에 있어서 첨병 역할을 했던 요인이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극단적인 불평등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죽음을 수반한다. 여기서의 죽음이란 1인, 2인의 사망이 아니라 수백, 수천만의 절멸을 뜻한다. 대륙 간 위계의 정립 과정은 곧 잔인한 추방과 학살의 역사이며, 원주민들의 피로 얼룩진 서사이다. 비록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방법론에 있어서 '역사적 과학'의 의미를 역설하지만, 그와 함께 역사 안에서의 윤리성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겠다.

마) 수학과 김영지(미 비포 유)

얼마 전에 <미 비포 유> 라는 영화를 보려다가 상영 시기를 놓쳐 동명의 원작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책을 보았다. 아주 큰 감명을 받고 속편도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는 이후의 이야기인 <애프터 유> 를 대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는 한번 읽은 책은 다시 안 읽는 스타일이지만, <미 비포 유> 는 이 시점에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밤샘 독서 이벤트'를 기회로 도전하게 되었다.

루이자 클라크는 직장을 잃고 윌 트레이너의 간병일을 새롭게 시작한다. 윌은 냉철하고 성공적인 사업가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가슴 아래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마비를 가지게 된다. 그는 역동적인 삶과 스포츠를 즐기는 자신의 몸을 사랑했던 만큼 사고 이후에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하루하루를 괴로워한다. 그리고 그 인생을 끝내기 위해 6개월 뒤 안락사를 준비하고 있다. 윌과 친해질 무렵 이 사실을 알게 된 루이자는 그 선택을 되돌리려고 애를 쓴다. 윌을 위해 인터넷으로 마비환자들에게 조언을 얻기도 하고, 그를 데리고 먼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윌 또한 그녀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의 입장에선 무엇을 열정적으로 해본 일이 없고 다른 지역을 가본 적이 없이 반경 8km안에서만 26년을 살던 그녀가 답답했다. 처음 접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그녀에게 모험을 해

보라고 부추기고 그녀의 새로운 시도를 함께 해주기도 한다.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 사랑하게 되고, 루이자는 윌이 자신과 함께할 때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며 안락사라는 결정을 포기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같이 떠난 휴양지에서 귀국할 무렵 안락사 병원인 스위스의 디그니타스에 같이 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낸다. 윌은 이 휴가가 끝난 후 바로 디그니타스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고, 루이자는 결국 스위스로 가서 그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 그 후, 윌이 그녀에게 남긴 유언대로 루이자는 파리로 떠나 그가 추천했던 장소들을 가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내가 간략히 쓴 줄거리로는 이 책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 어떤 문장을 쓰면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이야기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여자는 남자가 어떤 상태여야 편안한지, 만약 불편하다면 몸의 각도를 어느 정도로 맞추어 줘야하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했으며, 남자는 쳇바퀴를 도는 여자의 삶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책을 읽는 내내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해 몰래 훔쳐본 느낌이 들어 미안할 지경이었고, 이런 소설을 쓴 작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다. 내가 살면서 한번이라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참 복 받은 삶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을 제외한 책의 중요한 키워드는 '삶의 태도'이다. 윌은 사고 전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즐기는 사람이었고, 루이자는 반대라고 할 수 있다. 꿈은커녕 하고 싶은 것, 취미 도 없는 지루한 삶을 살았다. 몸이 굳어버린 윌은 그런 루이자를 안타까워하며 계속해서 주체성을 심어주려고 노력한다. 아버지, 남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루이자가 문신을 하는 것을 망설이자 윌은 이렇게 말한다. "남자친구가 안된다고 하니까. 스물일곱이나 됐는데도 착한 딸이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러지 말아요, 클라크. 좀 삶을 살아봐요. 대체 발목 잡는 게 뭐가 있다고 이래요?" 이 대목이 정말 인상 깊었다. 윌만이, 이제는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나는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에 핑계를 대며 피해간 적이 많았다. 그런데 이 책은 건강한 몸이 있고 나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왜 망설이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도록 시킨다. 이 질문에 대해 나는 한번뿐인 삶을 오롯이 나의 선택에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고 대답하게 되었다. 어쩌면 삶이란 것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주체성을 찾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대사로는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내고, 그 두 가지 일이 가능한 직업의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문제는,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가 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는 마치 나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뜨끔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내가 성적을 잘 받고 싶어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게 이 이유인 것 같아서 정말 반성이 되었다. 시험기간에 이 책을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책의 제목인 '미 비포 유'는 '당신을 만나기 전의 나'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변하게 됨을 의미한다. 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책을 읽은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미 비포 '미 비포 유'' 라고! 나는 뭐든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청춘이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자기 성찰과 반성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쓸데없는 자기 방어와 연민 따위에 시간을 흘려 보내기엔 아까운 나이이다. 마음껏 사랑도 해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를 찾는 것이 이 책의 존재 이유이자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4) 가작

가) 문화경영 정다희 (하루가 더 행복해지는 30초 습관)

나는 인간에 대한 여러 감동적인 사연이 담긴 1도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었다. 책을 읽으며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돕고 희생하는 모습, 시련과 한계를 극복하는 사례들을 읽으며 마음이 따듯해졌다.

특히 이 책에 담겨 있던 이야기 중, 나는 화가 프리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멕시코에서 태어난 그녀에게, 아버지는 '평화'를 뜻하는 말인 프리다(Frida)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름이 가진 의미와는 거리가 멀었다. 유년시절 그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전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시작으로 일곱 번의 척추 수술, 오른쪽 다리 절단, 폐결핵, 신장병 등의 합병증, 세 번의 유산, 우울증,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휠체어 등 험난한 인생의 고비를 겪었다. 그러나 그녀는 살고 싶었고, 누워 있는 삶이 끔찍하게 지루해서 무엇이든 해보려고 시도했다. 그녀의 그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의 평생소원 세 가지는 남편 디에고와 함께 사는 것, 평생 그림을 그리는 일, 그리고 혁명가가 되는 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천하의 바람둥이였고, 그 상대 중에는 그녀의 여동생도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모든 것을 딛고 그림을 그렸다. 영혼과 육체가 모두 상처 입고, 두 손만이 자유로웠던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멕시코 여성'이라는 유리천장을 깨고, 당당히 미술계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내 이름의 뜻은 '많을 다'에 '기쁠 희', 인생을 살며 웃을 일이 많아지라는 뜻에서 엄마가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다. 아직 다 살아보지 않은 삶이지만, 대학 졸업을 앞둔 지금 내 삶을 돌아본다면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고등학생 때, 우리 집은 사업 부도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졌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내며 가난을 어렴풋이 깨달았고, 나는 내가 돈을 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하루 고생하며 살아가는 엄마를 보며 돈을 벌 능력을 갖춘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소원대로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해 여름, 그녀는 암 3기 말의 환자가 되어 중환자실에 눕게 되었다. 나는 1학년 1학기만을 마치고 곧장 학교를 휴학하고 가장이 되어 돈을 벌었다. 하루하루 간신히 버텼지만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나 또한 건강이 나빠져 수술을 받아야 했다. 겨우 20살인 내게는 이 모든 시련이 벅차고 버티기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소리 내지 않고 우는 법을 익혔다. 나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엄마를 옆에 두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학교에 복학했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도 나는 마음 편히 쉬어본 날이 없다. 학업과 집안일,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20살, 그러나 스무 살의 나는 나에게 주어졌었던 고난들을 원망했었다. 하지만 25살을 앞둔 지금의 나는 내가 겪어온 시련들을 더는 원망하지 않는다. 가장 다사다난했던 20살부터 나는 슬픔을 견디려고 시를 읽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을 가장 따듯하게 위로해준 정호승 시인은 가장 상처가 많은 풀잎이 향기롭다고, 그늘이 있어야만 햇살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다. 그 시들을 읽고 나는 그제야 소리를 내 울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련들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덤덤히 버티는 법을 익히며 깨달은 사실이 있다. 모순적이지만 내게 주어진 역경들은 나를 더 열심히 살게 한다는 것이다.

화가 프리다 또한 이름처럼 삶이 평화롭지 못했지만, 그녀 역시 나처럼 자신의 삶에 주어진 시련들을 덤덤히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어진 시련들은 그녀가 더 예술적이고 훌륭한 그림을 그리도록 이끌어주었을 것이다. 비록 나는 프리다처럼 고통을 예술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며 나라는 나무를 튼튼히 만들고 싶다. 그 나무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많은 폭풍과 비바람을 겪겠지만, 그 과정을 견뎌 나만의 향기로운 잎을 피워낼 것이다. 나는 나의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아름답게 빛날 것을 믿는다.

나) 전기공학 우승호 (고전, 어떻게 읽을까?)

IT공과 대학생으로서 평소 인문학 서적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고전문학에 대한 관심은 많았으나 막연하게 고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였다. 다른 많은 책등 중에서도 이 책이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이유도 그래서인 것 같다.

이 책의 저자인 김경집 작가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인문고전을 읽도록 한 시카고 대학의 사례를 들며 고전을 통해 선인들의 사고능력과 정신,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고, 고전이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스스로 다채로운 시각을 갖도록 해준다고 말하였다.

내가 생각할 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전읽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상을 보는 시각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고전 읽기를 단순히 선인들의 지혜를 무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답습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우리 스스로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전 작품이 쓰인 당시의 시간과 공간,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읽을 때에야 비로소 고전이 진정한 삶의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김경집 작가는 고전을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대한 창이라고 정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은 크게 5개의 장으로 나누어 다양한 고전작품들을 소개하였다. 가장 먼저 1장에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고전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공자'의 <논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감명깊었다.

'공자'의 <논어>라 하면, 일단 '인', '예', '도덕' 등 도식적이고, 권위적, 추상적인 인상을 가지게 된다.(이는 비단 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작가는 <논어>를 철학/정치의 관점에서 어렵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네 세상사는 이치를 이야기로 풀어놓은 문학서적으로 바라보기를 권한다. 실제로 <논어>는 공자의 혼잣말, 공자와 제자 또는 제자들 간의 문답 등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이하고 쉬운 글을 통해 누구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강목들을 제시하여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스스로 진정한 삶의 주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평소 공자, 논어 라는 말의 무게에 눌려 괜히 기죽고 외면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자의 논어를 열린 눈으로 읽어볼 수 있게 되었다.

2장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세상을 바꾼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 과학서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 책을 종교적,사회적 차원에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공학도로서 '다윈'의 <종의 기원>은 상당히 유명한 책이고, 나도 이미 접한 적이 있는 고전이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작가는 조금은 새로운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았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같이, 다윈의 진화론을 생물학적인 자연선택의 진화 메커니즘과 종의 분화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과 동시에 이를 사상학적,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당대

의 세계관을 뒤흔든 고전으로 보았다.

당시 영국은 성서적 세계관, 즉 신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는 완전하여 어떠한 변화도 필요치 않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러한 세계관에 흠집을 내려는 '다윈'을 억압하였다.

하지만 그는 결코 비판과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생물학과 종교, 경제, 정치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나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 생물학의 관점에서 근대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킨 과학서적일 뿐 아니라, 문화/사회의 측면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향한 혁명적인 고전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과학을 공부하여 나아가 이를 실생활에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 공학도로서 과학이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 실용적 이로움만을 주는 학문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라는 가장 큰 가치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은 나에게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진리를 밝혀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고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 더불어 이를 통해 인류의 가장 큰 가치인 자유를 추구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과학과 공학을 뗄 수 없는 나에게 '다윈'의 <종의 기원>이 새롭게 다가온 시간이었다.

3장에서는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를 다시 읽고 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다. <어린왕자>라는 책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만큼 나 역시도 학창시절 이 책을 처음 접하였다. 당시의 내 감상은 조금은 난해한(?) 숨겨진 의미를 찾기 힘든 순수한 어린아이 동화 정도였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어린왕자>의 숨겨진 의미를 '질문'에서 찾는다. 이 책에서 어린왕자는 혼자서, 또는 비행사와, 때로는 여우와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문답에서 핵심은 '답'이 아니라 '문'에 있다.

독자는 자신의 배경, 즉 현재 나이, 경제적 배경, 현재 처한 상황 등에 따라 각 질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게 된다. 바로 이것이 <어린왕자>를 관통하고 있는 중심 생각이다. 같은 질문이라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주체의 방법에 따라 그 답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같은 작품에 대해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관점과 감상이 다르다는 것은 나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다. 어린 시절 조금은 비이성적이지만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나에서, 주변 환경들에 적응하여 이해타산적으로 굳어져버린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어린왕자>는 나와 다른 존재와의 관계, 나아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관계의 대상이 되는 타인과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이 역시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바라보는 주체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나에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하며, 대상을 직설적으로만 보지 말고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권하고 있다.

주어진 인식의 틀, 가치의 틀, 사고의 틀 속에서 기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관계들 속에서 내 가슴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내 삶과 관계가 의미를 갖는다.

<어린왕자>에는 "네가 네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에 네 장미가 그토록 중요하게 된거야."의 대목이 있다.

내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 성찰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관계에만 국한된 시선을 가지고 있던 나를 반성하게 되었으며,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내가 나 자신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준 고전이었다.

4장에서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로서 다양한 고전문학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그 중에서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라는 고전소설이 인상깊었다. 평범한 시골의사 보바리의 아내 엠마는 다정

다감하고 몽상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지주, 사무소 서기 등과 정사를 거듭하게 되는데 님편 몰래 빚이 늘어나 비소를 먹고 자살한다는 이야기이다.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소설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소설이 일정한 구조속에서 인간의 모습과 사회상을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담 보바리>는 프랑스 사실주의 소설의 첫 걸작으로 대표적인 통속소설이다.

얼핏 치정극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어떠한 매개도 없이 엠마라는 여인 스스로가 택한 삶을 통해 당시대가 안고 있던 한계를 보여주었다.

현실과 꿈을 조화시킬 줄 몰랐던 엠마의 갈등은 그저 꿈만 꾸라고 부추긴 기존의 낭만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19세기 전반 프랑스 지방사회와 소시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었고, 곳곳에 당시 세계를 해부하고 분석하는 장면을 담은 이 소설을 통해 소설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단순한 흥미 위주의 작은(小) 이야기(說)가 아니라 우리네 현실을 반영하는 자기반성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인간과 사회를 성찰한 고전들이 소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나는 교육학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유명한 '장 자크 루소'의 <에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다.

<에밀>은 '에밀'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아의 출생에서 성장까지의 과정과 교육에 대하여 다룬 교육소설이다. 진정한 인간 혁명은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슬로건과 함께 그동안의 교육의 한계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지적하였다.

교육의 근원적 한계는 "과거의 사람이,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의 세대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루소'는 <에밀>을 통해 교육이란 자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성세대의 주입식 교육과 기존 질서체제의 강요를 비판하였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과 사회를 성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루소'의 <에밀>을 읽으며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오버랩되었다.

'루소'가 읽찍이 주입식 교육과 어른의 잣대로 만들어진 교육의 문제와 허구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입식 교육에 몰두하고 있고, 어른들의 방식으로 교육의 문제를 재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들이 빠진 논의들은 현장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시선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때 '루소'가 말하는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기성세대의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역시 우리 사회의 통념과 질서를 그대로 지속하기 위한 재생산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사회의 부패와 교육의 타락을 이해하되 이를 고쳐나갈 염원을 가지고 올바르게 변화시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루소'의 <에밀>은 합리적인 사고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올바를 민주주의, 올바른 교육환경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연마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그동안 나는 진학, 취업 등 산업화 시대의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고전의 가치를 잊은채 그저 고리타분한 책들이라고만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의 가치, 주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잃은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온 것 같다. 고전이 말하는 실용은 당장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

는 돈이 아니라, 삶의 굽이마다 의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와 지혜이다.

단순한 교양이나 지적 욕구를 위함이 아니라 삶에 반영될 수 있는, 내 삶을 움직이는 고전 독서가 되도록 노력하여 앞으로는 속도와 효율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지도록 해야겠다.

다) 에너지자원공학 이승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사상)

1. 서론

2016년 10월 26일 한 언론사에서 입수한 자료에 대한 특종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사회 분위기는 전환점을 걷게 된다. 이 자료는 논란되고 있던 사건의 많은 사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단 며칠 만에 국가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윤리체계,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들게 되었다. 국정은 마비가 되었고 그에 따라 급격한 세계정세 전환에 따른 대응조차도 위기를 맞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은 민주주의 기본사상의 농락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대대적인 평화집회를 매주에 걸쳐 행하기 시작했다.

국가에는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법기관, 감시기관, 그리고 조사기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인민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언론은 건강한 인민이 대상 정보에 대해 스스로 이성을 이용하여 무엇이 옳고 그르며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위하여 또한 건강한 인민을 위해 언론 출판의 자유를 행해야만 한다. 이 자유를 행함에 있어서 헌법에서는 21조 4항에서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사회와 언론 그리고 인민 사이의 이런 합리적인 상호작용은 자유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 대한 원리들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은 여러 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90년 대한민국에 적용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 역시 헌법에 명시된 자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

19세기 존 로크(John Locke)의 빈 서판(tabula rasa)이론의 영향을 받은 제임스 밀(James Mill)과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통해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을 교육시켰다. 밀은 이런 교육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과 뛰어난 면목을 보였다. 밀은 특히 사회가 합법적으로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에 대한 그의 말을 빌리자면 시민적 자유 혹은 사회적 자유에 대한 의미를 확립하였다. 이 의미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벤담의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밀이 어떤 원리를 통하여 의미를 확립하였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밀의 관점에서 언론의 자유가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서의 한계점이 있는지 고찰해 본다.

2. 밀의 공리주의와 자유사상

공리주의는 현재까지도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원리이다. 벤담은 무엇이 옳은가라는 옳고 그름의 윤리적 문제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혹은 쾌락)' 이라는, 쾌락을 최대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공리주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각 개인의 행복의 양을 수치화하는데 있어서 한 사람의 행복은 모두 같음을 전제조건으로 출발하였다. 반면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의 원리를 수용하면서도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들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사실의 인정이 공리의 원칙과 충분히 양립가능하다. 다른 모든 일을 평가할 때에 질과 양이 더불어 고려

될 수 있으면서 쾌락의 평가는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황경식, 2006. 존 스튜어트 밀, 자유주의자인가 공리주의자인가. 수행인문학, 36, pp.121-150.

이런 밀의 공리주의적 사고는『자유론』에서 사회적 자유에 대한 의미의 결론에 대한 판단에서 기능한다.

밀에게 있어서 자유는 절대적이다. 朴權相, 1990. 언론의 자유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관훈저널, (50), pp.7-16.

이런 밀의 자유에 대한 의미는 밀의 설명에 있어서 중요하다. 밀의 입장은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어떤 의견이 어떠한 논쟁과 반박의 토론에서도 지지 않아서 그 의견을 진리에 다가간다고 보는 것과 논박하고 반증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고 진리라고 가정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를 둔다. 밀은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김형철, 2006. JS Mill,[자유론]-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도 좋은가. 철학과 현실, pp.214-223.

이에 대해 밀은『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떤 의견이 모든 논쟁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반박되지 않았기에 그것을 진리라고 추정하는 것과, 반박을 허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것이 진리임을 가정하는 것 사이에는 최대의 차이가 있다. 어떤 모든 반대론, 적어도 명시적으로 제기되는 모든 반대론을 인식하고, 또 모든 반대자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취한다면 - 자신이 반대와 난점을 회피하는 대신 오히려 추구해 왔고, 주제에 관해 모든 방면으로부터 던져질 수 있는 그 어떤 빛도 차단하지 않았음을 알기에- 자신의 판단이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어떤 사람의 판단보다, 어떤 다수의 판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권리가 있다.

이런 밀의 주장의 원리에는 토론의 자유를 통해서 얻는 결과의 쾌락이 고통보다 항상 많다는 공리주의 원리가 숨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밀의 설명은 자유가 시민들을 창조성과 독립성을 갖게 하여 이런 시민들이 만드는 새로운 생각은 사회 전체에 있어서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Mill, J.S., 2015.『On Liberty』. 권기돈 역. 임프린트 펭귄클래식 코리아

이렇게 토론의 절대적인 자유는 바로 사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로 연결된다. 밀은『자유론』에서 '사상과 토론에 관하여' 장에서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한다.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사람만이 반대의견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한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만일 그 의견이 당사자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개인적인 것이라면, 즉 만일 그 의견을 향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 해악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해악이 몇몇 사람에만 미치느냐 혹은 많은 사람에게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견 발표를 침묵케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해악의 특수성은 현세대와 차세대를 포함한 전 인류의 행복을 강탈한다는 사실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보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실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교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만일 그것이 틀린다면, 진리가 오류와 충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리에 대한 더욱 명백한 인식과 더욱 선명한 인상을 상실하게 되는 엄청난 혜택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밀의 주장은 언론의 자유와 연결된다. 언론을 통해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형성하는 여론은 밀의 설명에 따라 여론 사이의 토론 기회를 제한당하여 고통의 극대화가 되는 일을 피하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최대화할 근거가 된다. 이런 사회가 자유에 대한 불가침성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적용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밀의 공리주의 원리에 입각한 자유에 대한 설명에서는 공리가 증가되는 방향이라

면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도 된다는 공리주의의 약점에서 자유를 지켜낸 셈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존 롤스(John Rawls)는 모든 사람이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분으로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성을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비슷한 의견을 표현한다. Rawls, J., 2009.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3. 언론 자유와 한계

밀의 『자유론』은 이렇게 자유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에 대해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자유라는 가치가 공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밀은 이 질문에 대해 자유를 절대적인 진리로 전제함으로써 답하지만 그런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토론의 과정에서 의견들의 조정이나 합의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떻게 토론이 행복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밀은 이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를 제시할 수 있는가? 황경식, 2006. 존 스튜어트 밀, 자유주의자인가 공리주의자인가. 수행인문학, 36, pp.121-150.

아마도 이는 공리주의의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득과 손실에 대해 계산하는 상황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이득이 극대화되며 손실이 최소화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득과 손실에 계산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또한 밀의 설명과 같이 토론이 옳고 그름에 따라 혹은 참과 거짓에 따라 반박하고 논증함으로서 전체 사회가 발전하는 목적으로서의 토론이 아니라 어느 개인 혹은 집단의 사회적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전체 사회에 해가 되고 다른 개인 혹은 소수의 집단에 득이 되는 수단으로서의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토론의 자유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밀의 자유에 대한 의미의 원리인 이득과 손실에 대한 계산만으로는 토론을 행하는 사람의 양심, 덕목, 인격체와 같은 가치와 그런 가치들 사이에서 필요한 원칙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을 지도 모른다.

4. 맺음말

밀의 자유사상에 대해 고찰하면서 자유에 대한 공리주의 원리와 한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문명화된 현대 사회는 밀에서 현재까지 토론되고 영향을 미치게 된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사회와 언론과 여론이 서로 민감한 상호작용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어쩌면 밀의 주장대로 각종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토론과 합의로 진실에 다가가면서 전체 사회의 행복이 증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유론』을 통해 언론 자유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김형철, 2006. JS Mill,[자유론]-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도 좋은가. 철학과 현실, pp.214-223.
朴權相, 1990. 언론의 자유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관훈저널, (50), pp.7-16.
황경식, 2006. 존 스튜어트 밀, 자유주의자인가 공리주의자인가. 수행인문학, 36, pp.121-150.
Mill, J.S., 2015.『On Liberty』. 권기돈 역. 임프린트 펭귄클래식 코리아
Rawls, J., 2009.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라) 경영학 최유정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가벼움과 무거움, 그 경계를 살아가는 것>

먼저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벼움'을 이해하는 것이다. 단순히 무게로 측정되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가벼움 말이다.

'한 번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 회의에서부터 이 소설은 시작된다. 단지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 게다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삶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이라면, 내 존재가 겪을 유일한 삶이라면, 과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삶이 죽음과 다른게 무엇이며 삶에 더 가치를 둘 수 있겠는가? 아무런 무게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가볍고도 가벼운 존재가 아닌가?

소설 속에서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벼움과 무거움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것은 토마시와 테레사의 관계이다. 가벼움과. 두 남녀의 사랑을 통해 가벼움과 무거움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1차원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여러 여성과의 관계에 거리낌 없는 토마시는 매우 가볍다. 그리고 그런 토마시와의 운명을 믿고 그를 진정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테레사는 무겁다. 하지만 한번 더 생각해보면 그들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존재들이다. 테레사가 떠난 후 그는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후에 그녀가 원하는 대로 시골로 들어가고립된 생활을 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테레사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가벼움을 추구하는 그이지만 무거운 삶을 지닌 테레사를 그의 삶에 기꺼이 받아들인다. 테레사는 어떠한가. 그녀 또한 토마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그녀는 그의 가벼움을 버텨내지 못하는 자신을 버텨내지 못한다. 자신이 그를 옭아맨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를 떠난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남자와의 짧은 일탈을 통해 가벼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두 인물모두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절대적인 가벼움과 무거움은 없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다.

가벼움과 무거움은 존재가 지닌 특성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특성은 존재를 완벽하게 나타낼 수 없다. 그 혹은 그녀는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두 단어로만 존재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까. 선과 악, 이성과 감성, 주관과 객관 등 양립하는 단어들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인간의 존재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던지면 누구든 하나의 답변을 고를 것이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답변을 하는 이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저 어느 한 쪽에 근접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어디에 더 가깝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옳다, 그르다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겁다와 가볍다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존재에 있어 가벼움과 무거움은 공존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삶을 살아가며 가벼움과 무거움 그 경계를 수 없이 오고 가는 것이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답은 알 수 없다. 어쩌겠는가, 우리의 존재가 절대적인 어떤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될 텐데.

마) 생명과학 고혁준 (세계사편력1)

밤샘독서에 신청할 당시 내가 이미 읽어봐서 익숙한 책의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밤에 도서관에 들어서니 내가 아직 읽어보지 못한 책을 보고 싶어졌다. 바쁘게

읽지 않아도, 한 권을 못읽어도 좋으니 새로운 책도 괜찮을 것 같았다. 마침 요새 흔들리는 민주주의에 분노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고민이 들었는데 역사를 들춰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법 두툼한 세계사편력 1권을 집어들게 되었다.

세계사편력은 네루가 감옥에서 딸에게 쓴 편지를 모아 엮어낸 책이다. 세계역사에 대한 짧고 간단한 설명들과 저자의 견해가 들어 있는데 딸에게 이야기하는 자상한 목소리로 담겨 있다. 5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세계사 편력 1권에는 총 94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내가 읽은 부분은 그중 제일 첫 부분인 '열세번째 생일을 맞는 인디라 프리야다르시니에게'이다. 후기는 대부분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내 생각을 조금씩 덧붙였다.

현장법사는 600년에 태어난 중국 당나라 초기의 승려인데 그의 인도 여행기에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한다. 허리에 구리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횃불을 이고 의젓한 발걸음으로 돌아다니는 남자가 있었다. 누가 그런 옷차림을 한 까닭을 묻자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지혜는 너무나 커서 자칫하면 배가 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리띠를 둘렀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바보여서 미궁에 빠져 있으니 그것이 불쌍해서 머리 위에 횃불을 피워 밝혀 주고 있노라고 말이다.

그러나 세상은 넓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초월한 곳에는 또 다른 불가사의하고 신비로 가득 찬 많은 세계가 있다. 그렇다면 현장이 말한 그 어리석고 교만한 남자처럼 공연한 걱정을 하거나 이제 배울 것은 다 배워 대현인이 되었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정말 대현인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음은 따분하고 삶의 가장 큰 보람을 잃는 일일 것이다. 또한 요즘과 같이 다양한 개인적 경험을 하고 전문성이 깊어지고 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섭렵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기 위해 설교가 아니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토론하는 가운데 때로 사소한 실마리나마 붙잡게 되고 진리는 풀려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을 결정할 때 관료집단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 학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조정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여론이 높다면 합의가 될 때까지는 시행이 되어선 안된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민주주의의 단점이자 장점이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위안부합의, 사드배치결정, 세월호특조위강제종료 등과 특히 최근의 혼란한 시국하에서 비밀리에 신속하게 치뤄진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까지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았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민주주의 사회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날마다 빵과 버터, 자식들 뒷바라지, 먹고 살아갈 걱정에 사로잡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 그러나 때가 무르익어 사람들이 커다란 목표를 세우고 확신을 갖게 되면 아무리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영웅이 되며, 역사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 커다란 전환기가 찾아온다. 분노한 시민들은 이름뿐인 민주주의를 거부했다.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영하로 떨어진 밤하늘 아래 어린자녀들과, 학교친구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천진한 어린아이들까지 그들의 작은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 바로 지금 우리 시민들은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너와 나는 다행히도 그 사건을 바로 눈앞에 보면서 이 위대한 드라마 속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위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또 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나에게 어떤 운명이 돌아올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민에게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3.1운동과 4.19, 5.18, 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고귀한 민주주의를 계승해 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전에 자유와 평등을 당연히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깊이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명예야말로 신성한 임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헤아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숨기거나 숨기려 하지 말 것, 무엇을 숨기려 하면 언제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불안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거니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용감하거라. 우리의 위대한 해방 운동에는 아무런 비밀도 감출 것도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사생활을 가질 것이고 또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비밀과는 전혀 다른 것

이다. 그리고 만약 네가 그것을 실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침착해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빛의 딸로 자랄 것이다.

1930년에 저자가 살았던 인도의 상황이 지금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정치와 민중의 속성이 아직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행동했던 것들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 나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진실을 추구하고 사리를 판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수호해 왔던 민주주의를 후손들에게 훼손시키지 않고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창밖의 밤은 고요하다. 오직 책에 스며들 수 있는 시간들... 동이 트기 전에는 많이 졸기도 했지만 잠에서 깨었을 때 눈에 들어온 책장의 책들, 그리고 책속에 몰입해 있는 학우들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면서 나까지 행복했다. 뺏지를 찾지는 못했지만 보물찾기를 하면서 생전 손길이 스치지 못했을 크고 작은 오래된 책들을 펼치고, 들어보고, 만져보기도 했다. 사실 그중에 정말 내개 보물이 될 소중한 어떤 책이 있지 않았을까? 퇴실하기 전에 학우들이 그리고 쓴 그래피티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다. 책과 도서관과 이번 밤샘독서 행사에 대한 느낌이 그림과 글씨와 무엇보다 귤껍데기로 웃음을 전해주었다. 일부의 외국 대학 도서관에서는 24시간 서가를 개방하는 곳도 있다는데 우리학교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아쉽기도 했었는데 이번과 같은 밤샘독서 행사는 즐거웠다. 책과 함께 밤을 지샌다는 것. 항상 조용한 도서관이 이렇게 맛있게 그리고 조금은 수다스런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석 인문과학정보실과는 하룻밤 보냈으니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이런 행사는 도서관 연례행사로 치러졌으면 좋겠다. 한번은 사회과학정보실도, 또 자연과학 정보실도 번갈아가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1년을 더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시험기간을 피해 한학기에 한번 정도 시행되면 어떨까. 그리고 프로그램 중 독서, 책, 책과 관련된 교수님과의 북콘서트 등과 같은 책과 관련되어 각자 생각을 나누거나 대화할 수 있는 편하고 가벼운 프로그램이 하나 정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5층에는 DVD타이틀이 많으니까 공간을 활용해서 영화제 같은 것도 도서관에서 이번 형식과 비슷하게 밤샘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위에 적은 세계사편력 후기는 고작 3장 정도 되는 분량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밤샘독서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먹는 즐거움이 컸다. 햄버거, 과자, 귤 등의 먹거리를 풍부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찐빵과 같이 섬세한 관심까지 가져주신 도서관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덕분에 맛있게 먹으면서 허기를 채우고 안락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저자와 교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후배님들을 포함한 인하 구성원들이 이번에 내가 경험했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 도서관에서 이와 같은 즐거운 경험을 꼭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태어나 처음 도서관에서 책과함께 밤을 보내는 즐거움을 선물 해주신 정석학술정보관 선생님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부 록]

◇ 2016학년도 예산현황 ◇

(단위 : 원)

<table>
<tr><th rowspan="2">프로그램명</th><th rowspan="2" colspan="2">세부내용</th><th colspan="2">예 산</th></tr>
<tr><th>항목별 금액</th><th>소 계</th></tr>
<tr><td rowspan="3">'Book드림'</td><td colspan="2">1. 도서구입 : [1회 시행]
· 1회 : 240권 / 3,024,000원</td><td>3,024,000</td><td rowspan="3">3,814,000</td></tr>
<tr><td colspan="2">2. 독서후기 공모작 심사
: 1명 * 1회 * 200,000원</td><td>200,000</td></tr>
<tr><td colspan="2">3. 독서후기 수상자 문화상품권 : [1회 시행]
< 상품 지급 기준표 >
<table><tr><th>상급</th><th>지급액</th><th>인원</th></tr><tr><td>최우수</td><td>200,000원</td><td>1명</td></tr><tr><td>우수</td><td>100,000원</td><td>2명</td></tr><tr><td>장려</td><td>50,000원</td><td>2명</td></tr><tr><td>가작</td><td>30,000원</td><td>3명</td></tr></table></td><td>590,000</td></tr>
<tr><td rowspan="9">'Book새통'</td><td rowspan="5">1차</td><td>1. 강사료 : 1명 * 1회</td><td>200,000</td><td rowspan="9">3,714,810</td></tr>
<tr><td>2. 도서구입 : 30권 * 28,800원</td><td>864,000</td></tr>
<tr><td>3. 독서후기 수상자 문화상품권
< 상품 지급 기준표 >
<table><tr><th>상급</th><th>지급액</th><th>인원</th></tr><tr><td>최우수</td><td>100,000원</td><td>1명</td></tr><tr><td>우수</td><td>50,000원</td><td>2명</td></tr><tr><td>장려</td><td>20,000원</td><td>5명</td></tr></table></td><td>300,000</td></tr>
<tr><td>4. 홍보물 제작
· 배너 및 현수막 : 277,200원
· 자료집 및 설문지 : 170,000원</td><td>447,200</td></tr>
<tr><td>5. 진행비
· 진행용품 및 다과비 : 108,900원
· 감사패 제작비 : 70,000원</td><td>178,900</td></tr>
<tr><td rowspan="4">2차</td><td>1. 강사료 : 1명 * 1회</td><td>500,000</td></tr>
<tr><td>2. 도서구입
: (50권 * 8,100원)+(50권*9,000원)</td><td>855,000</td></tr>
<tr><td>3. 홍보물 제작
· 배너 및 현수막 : 236,500원
· 포스터 및 설문지 : 39,800원</td><td>276,300</td></tr>
<tr><td>4. 진행비
· 진행용품 및 다과비 : 93,410원</td><td>93,410</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프로그램명</th><th rowspan="2">세부내용</th><th colspan="2">예 산</th></tr>
<tr><th>항목별 금액</th><th>소 계</th></tr>
<tr><td rowspan="9">‘Book나래’</td><td>1. 강사료 : 1명 * 1회</td><td>200,000</td><td rowspan="9">2,326,570</td></tr>
<tr><td>2. 사전 답사비
: 주유비, 자료구입비, 식비, 입장료</td><td>96,000</td></tr>
<tr><td>3. 홍보물 제작
· 배너 및 현수막 : 62,700원
· 자료집 : 36,500원</td><td>99,200</td></tr>
<tr><td>4. 식비 : 31명 * 8,000원</td><td>248,000</td></tr>
<tr><td>5. 학생 간식비
: 간식봉지, 귤, 빵, 음료, 생수</td><td>649,170</td></tr>
<tr><td>6. 차량 대여비 : 일반 고속버스 1대</td><td>462,000</td></tr>
<tr><td>7. 입장료 : 31명 * 1,600 * 2회</td><td>99,200</td></tr>
<tr><td>8. 경품 : 문화상품권 30장 * 10,000</td><td>300,000</td></tr>
<tr><td>9. 기타 진행비
: 물품 구입비, 회의비</td><td>173,000</td></tr>
<tr><td rowspan="2">독서동아리
지원</td><td>1. 독서토론 도서지원
· 북다방 : 7종 / 38권 534,780원
· 독서삼매경 : 4종 / 31권 723,600원</td><td>1,258,380</td><td rowspan="2">1,327,680</td></tr>
<tr><td>2. 회의비
: 69,300원</td><td>69,300</td></tr>
<tr><td rowspan="6">‘밤샘독서’</td><td>1. 심사 교수비 : 2명 * 1회 * 200,000</td><td>400,000</td><td rowspan="6">4,214,080</td></tr>
<tr><td>2. 독서후기 수상자 문화상품권

< 상품 지급 기준표 >
<table><tr><td>상급</td><td>지급액</td><td>인원</td></tr><tr><td>최우수</td><td>300,000원</td><td>1명</td></tr><tr><td>우수</td><td>200,000워</td><td>2명</td></tr><tr><td>장려</td><td>100,000원</td><td>5명</td></tr><tr><td>가작</td><td>50,000원</td><td>5명</td></tr></table></td><td>1,450,000</td></tr>
<tr><td>3. 홍보물 제작: 배너 및 현수막</td><td>206,000</td></tr>
<tr><td>4. 햄버거 및 간식비</td><td>1,432,720</td></tr>
<tr><td>5. 경품 : 문화상품권</td><td>100,000</td></tr>
<tr><td>6. 진행비
· 물품 구입 : 465,360
· 아르바이트비 : 160,000</td><td>625,360</td></tr>
<tr><td colspan="2">합 계</td><td>15,397,140</td><td>15,397,140</td></tr>
</table>

◇ 2012 - 2016 'Book돋움' 대비표 ◇

구분		주 제				
		2012	2013	2014	2015	2016
'Book드림'	1차	자본주의 그 이후 (에드가 모랭) / 20세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박세길)	학문의 즐거움 (히로나카 헤이스케) / 투게더 (리처드 세넷)	나부터 세상을 바꿀 순 없을까? (강수돌) / 총,균,쇠(재레드 다이아몬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Robert B. Reich)	생명의 느낌 (이블린 폭스 켈러) /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
	2차	삶을 바꾼 만남 (정민) /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정수복)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 파편과 형세 (최문규)	한국 자본주의 모델 (이병천) / 비주얼 컬처 (John A. Walker, Sarah Chaplin)	-	'동계방학 중 학술정보 이용활성화 이벤트' (독서후기 제출)
	3차	냉철한 머리, 뜨거운 가슴을 앓다 (변형윤) / 고백 (장 자크 루소)	-	-	-	-
'Book새통'	1차	결핍을 즐겨라 / 저자 최준영	나를 꿈꾸게 하는 클래식 / 금난새의 클래식 여행 저자 금난새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여덟 단어 저자 박웅현	현재 대학의 '조금은' 슬픈 이야기 / 진격의 대학교 저자 오찬호	한국인의 죽음 이후의 세계 / 서영대 교수 (사학과)
	2차	-	-	-	-	20대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 마디 / 정호승
'Book나래'		강원도 춘천 김유정 문학촌	충청남도 부여 신동엽 문학관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안전성 문제로 취소)	예산감소 취소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독서동아리 지원'		-	-	북다방 독서삼매경	북다방 독서삼매경	북다방 독서삼매경

구분		실 적				
		2012	2013	2014	2015	2016
‘Book드림’	1차	도서배부 : 200권 후기접수 : 47건 수상자 : 10명	도서배부 : 300권 후기접수 : 53건 수상자 : 15명	도서배부 : 140권 후기접수 : 28건 수상자 : 10명	도서배부 : 200권 후기접수 : 87건 수상자 : 16명	도서구입 : 240권
	2차	도서배부 : 100권 후기접수 : 42건 수상자 : 6명	도서배부 : 250권 후기접수 : 61건 수상자 : 15명	도서배부 : 160권 후기접수 : 29건 수상자 : 15명	-	후기접수 : 21건 수상자 : 8명
	3차	도서배부 : 200권 후기접수 : 28건 수상자 : 6명	-	-	-	
‘Book새통’	1차	도서배부 : 70권 강연참석 : 146명 후기등록 : 16건 수상자 : 8명	도서배부 : 150권 강연참석 : 250명 후기등록 : 22건 수상자 : 8명	도서배부 : 250권 강연참석 : 355명 후기등록 : 20건수 수상자 : 8명	도서배부 : 150권 강연참석 : 190명 후기등록 : 19건 수상자 : 8명	도서구입 : 30권 강연참석 : 190명 후기등록 : 12건 수상자 : 8명
	2차					도서배부 : 100권 강연참석 : 200명
‘Book나래’		도서배부: 20권 참여학생: 20명	도서배부: 20권 참여학생: 20명	사전답사만 진행	-	참여학생 : 26명
‘독서동아리지원’		-	-	도서지원 : 20종 / 137권	도서지원 : 15종 / 121권	도서지원 : 11종/69권
‘밤샘독서’		-	-	-	-	참여학생 : 102명 후기등록 : 68명 수상자 : 13명
종 합		1. 2016년에는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책벌레 경시대회’ 교비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함 2. 2016학년도에 ‘Book돋움’은 1차는 선정도서를 프런티어학부대학 크로스오버 과제도서로 대출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차는 ‘동계방학 중 학술정보 이용 활성화 이벤트’로 대체하여 본관 소장 도서를 활용한 독서후기 제출로 진행함 3. 2016년 신규 사업으로 ‘밤샘독서’ 이벤트를 진행함				

구분	예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Book 드림’	도서구입비: 7,736,000 3회 심사료: 600,000 상금: 1,880,000 기타 물품구매, 홍보물 제작 및 진행비 등 총 14,270,000 집행	도서구입비: 9,765,000 2회 심사료: 400,000 상금: 2,300,000 기타 백서발간 홍보물제작 및 진행비 등 총 17,000,000 집행	도서구입비: 5,283,600 2회 심사료: 400,000 상금: 2,176,390 기타 백서발간 홍보물제작 및 진행비 등 총 10,638,400 집행	도서구입비: 2,430,000 1회 심사료: 200,000 상금: 1,141,830 기타 백서발간 홍보물제작 및 진행비 등 총 5,866,290 집행	도서구입비: 3,024,000 1회 심사료: 200,000 상금: 590,000 기타 진행비 등 총 3,814,000 집행
‘Book 새통’	도서구입비: 728,000 강사료: 700,000 상금: 300,000 기타진행비 등 총 2,087,000 집행	도서구입비: 3,780,000 강사료: 700,000 상금: 350,000 기타진행비 등 총 5,500,000 집행	도서구입비: 2,625,000 강사료: 500,000 상금: 355,500 기타진행비 등 총 4,362,000 집행	도서구입비: 1,957,500 강사료: 500,000 상금: 307,710 기타진행비 등 총 3,133,710 집행	도서구입비: 1,719,000 강사료: 700,000 상금: 300,000 기타진행비 등 총 3,714,810 집행
‘Book 나래’	차량, 도서, 기타진행비 등 총 2,623,000 집행	차량, 도서, 기타진행비 등 총 4,500,000 집행	사전답사비: 130,322 집행	-	차량, 도서, 기타진행비 등 총 2,326,570 집행
‘독서동아리 지원’	-	북다방 독서삼매경	도서구입비: 2,000,000 진행비: 200,000 등 총 2,200,000 집행	도서구입비: 2,000,000 진행비: 200,000 등 총 2,200,000 집행	도서구입비: 1,258,380 진행비: 69,300 등 총 1,327,680 집행
‘밤샘독서’					심사료 : 400,000 상금: 1,450,000 기타 진행비 등 총 4,214,080 집행
‘달력제작’	달력제작 1,020,000 집행	달력제작 3,000,000 집행	-	-	-
종 합	20,000,000	30,000,000	17,330,322	11,200,000	15,397,140

◇ 관련기사 ◇

1. 'Book드림' 관련 기사모음

< 2016학년도 동계방학 학술정보 이용활성화 이벤트 시상식 진행 >

지난 12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시행된 '동계방학 학술정보 이용활성화' 이벤트의 독서후기 우수작 시상이 9일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진행되었다.

정석학술정보관 정혜원 관장이 수상자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정혜원 정석학술정보관장은 "방학 동안 책을 읽고 후기를 작성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학생들이 대단하다"며, "앞으로도 정석학술정보관을 애용하며 책을 많이 읽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동계방학 학술정보 이용활성화 이벤트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상 급	소 속	성 명	상 금
최우수	고분자공학	오세휘	문화상품권 20만원
우수	간호학과	공주원	문화상품권 10만원
우수	철학과	이동원	
장려	생명과학	나병호	문화상품권 5만원
장려	국어교육	노유진	
가작	공간정보	하예진	문화상품권 3만원
가작	아태물류	허재황	
가작	고분자공학	곽지훈	

독서 후기 수상자에게는 상급별로 상장과 문화상품권(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장려상 5만원, 가작 3만원)이 수여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세휘 학생이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읽고 작성한 독서후기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세휘 학생은 "지난 하계방학 이벤트에 이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기쁘고 이런 이벤트를 기회로 삼아 독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며,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학우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좋은 추억을 얻어 가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후기 수상자들과 정석학술정보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 'Book새통' 관련 기사모음

<2016학년도 제1차 'Book새통':인문학강좌 개최>

지난 10월 4일, 2016학년도 제1차 'Book새통':인문학강좌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을 가득 채우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Book새통 참석자들이 강연 자료를 받아 입장하고 있다.

'Book새통' 행사는 책 읽는 리더 양성을 위한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돋움'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는 본교 사학과 서영대 교수님을 초청하여,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였다.

김봉세 학술정보운영팀장이 Book새통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강연에 앞서 학술정보운영팀 김봉세 팀장은 참석한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말과 함께 서영대 교수님의 약력과 저서를 소개하였다. 덧붙여 향후 진행될 'Book새통' 외부강사의 강연과, 'Book나래'(문학기행)에도 많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학과 서영대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이어 사학과 서영대 교수님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강연에서는 '한국인의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국인의 귀신관념에 대하여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접근하며 강연을 진행하였고, 교수님의 재치있는 언변으로 무서운 주제를 다루었지만, 강연장에는 학생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했다.

국제회의장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서영대 교수는 '한국에서는 왜 귀신을 대표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처녀 귀신인가?'라는 재미있는 질문으로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남존여비의 유교사회에서 여성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존재였다는 점, 신들림이 기혼여성에게 많다는 것은 남녀의 사회적 지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했다는 점을 설명해갔다.

우리에게 전해져오는 귀신 관념 또한 끊임없이 변화한 것으로, 오늘날처럼 각박한 현실 속에서 영화나 TV에 의해 더욱 무서운 형상으로 시각화되어 보여지는 부정적 관념과 함께, 반대로 권선징악

에 대한 믿음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일을 덜 하게 하는 인간사회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관념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영대 교수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음으로서 얻는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의문점을 남기며 강연을 끝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며 강연장의 열기를 이어갔다.

정혜원 정석학술정보관장이 서영대 교수에게 감사패를 드렸다.

마지막으로 정혜원 정석학술정보관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본관의 'Book새통' 행사에 강연해 주신 서영대 교수님께 감사패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최초로 본교 교수님을 초청하여 마련한 인문학 강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석학술정보관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문화적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2016학년도 제2차 'Book새통':인문학강좌 개최>

지난 11월 17일, 2016학년도 제2차 'Book새통':인문학강좌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국제회의장을 가득 채워 북새통을 이루었다.

Book새통 참석자들이 강연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Book새통' 행사는 책 읽는 리더 양성을 위한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돋움'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지난 달 1차 서영대 교수의 강연에 이어, 이번에는 정호승 시인을 초청하여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이번 강연에서는 문자 이벤트를 진행하여 도서를 선물로 배부하였다.

김봉세 학술정보운영팀장이 Book새통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강연에 앞서 학술정보운영팀 김봉세 팀장은 참석한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말과 함께 정호승 시인의 약력을 소개하였다.

정호승 시인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어 정호승 시인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20대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를 담은 동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오늘 들려줄 많은 이야기 중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 인생의 지렛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정호승 시인은 '시인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며,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나의 생각에 의해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말 것을 강조했다. 20대는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깊게 파는 시기이기에, 학업의 탄탄한 기반을 쌓아 높은 빌딩을 만들어갈 미래가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강연 참석자들이 음악을 들으며 시를 감상하고 있다.

강연 중간에는 그의 대표 시인 '고래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 '수선화에게' 시를 낭독하며, 시를 가사로 쓴 음악을 함께 들으며 시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도서를 받은 학생들이 정호승 시인의 사인을 받고 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문자이벤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를 배부하였고, 강연장 내에는 도서를 수령한 학생들은 정호승 시인의 사인을 받는 줄이 길게 이어져 강연장의 열기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본관의 'Book새통' 행사에 강연해 주신 정호승 시인과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3. 'Book나래' 관련 기사모음

< 2016학년도 'Book나래'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문학기행 시행 >

11월 19일 토요일, 2016학년도 'Book나래' 문학기행을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으로 떠났다. 만해기념관에서 민족 시인이자 독립 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일생과 문학관을 살펴보고, 문화해설사와 함께 남한산성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취지로 이번 문학기행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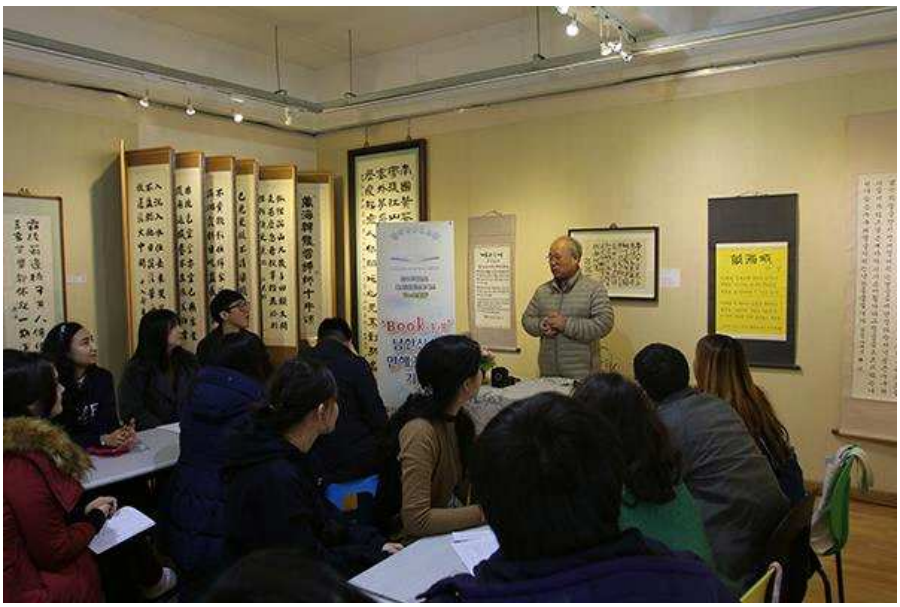
아침 일찍 모인 총 26명의 학생들은 (Book드림 수상자 3명, 신청자 23명) 학술정보운영팀 직원들의 인솔에 따라, 한용운 문학에 대해 알려주실 한국어문학과 송수연 강사님과 함께 만해기념관으로 출발하였다. 특히나 이번 문학기행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15명 참여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출발하는 버스에서 학생들은 아침으로 제공한 샌드위치와 푸짐한 간식을 먹으며, 제공한 자료집으로 한용운의 생애와 문학작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국어문학과 송수연 강사님께서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용운의 생애와 그의 대표 작품인『님의 침묵』에 대한 설명과 작품에 수록된 88편의 시 중 대표시를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이후 깜짝 퀴즈 이벤트를 통해 잠깐이었지만 공부한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만해기념관에 도착하였다. 남한산성에 위치한 만해기념관은 한평생을 만해 한용운 연구에 몰두한 전보삼 관장님이 만들어놓은 기념관이다. 만해기념관 내부에는『님의 침묵』초간본과 100여종의 판본 및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판도 전시되어 있었고, 3·1 독립운동 시 만해의 옥중 투쟁을 보여주는 각종 신문자료, 만해관련 연구 및 학술 논문 600여편이 정리되어 전시되고 있었다.

만해기념관의 학예사의 설명에 따라 만해기념관을 돌아보면서, 나라사랑의 독립정신과 만해의 님, 사랑, 그리고 침묵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만해의 정신과 생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번 문학기행의 하이라이트인 시낭송 시간이 되었다. 버스에서 미리 공부했던『님의 침묵』에 수록된 대표 시 중에서, 학생들은 각자 마음에 와 닿은 시를 친구들 앞에서 읽어보았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시 낭독에 활발히 참여한 점이 인상 깊었는데, 심지어 외워서 낭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평소에도 좋아하는 시라며『나의 길』을, 같이 온 여자 친구에게 마음을 고백하며『복종』을, '새벽종을 기다리면서 붓을 던집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이 와닿아『독자에게』를 낭독하는 모습에서 정말 시를 사랑하고 감상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감명 깊게 본 만해기념관장은 '개관이래 이렇게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시낭송에 참여한 적은 처음'이라며, '한용운의『님의 침묵』은 단순히 시집이 아니라 동양의 철학서라는 점을 강조하며, '님'과 '침묵'에 대한 의미를 잘 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해주셨다.

만해기념관에서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점심으로 맛있는 산채비빔밥을 먹었다. 참가한 학생 중 생일인 학생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즐겼다.

오후에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남한산성 행궁을 둘러보았다. 조선시대 20여개의 행궁 중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갖춘 남한산성 행궁은 국가 전란 시 부수도의 역할을 했으며, 실제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신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해설사는 인조가 외행전에서 집무를 보았던 이야기, 남한산성을 둘러싼 마을의 생활사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은 물론 참가한 학생들에게도 문화유산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해설을 마치고 행궁에서 나서 남한산성 북문을 올라가보며 탐방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Book나래'는 특히나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참여한 점에 큰 의미가 있었다. 한국 민족 시인의 문학을 외국인 유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려했던 점은 괜한 걱정이었다. 누구보다도 잘 참여하고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주는 학생들에게 감사하다. 열정적으로 문학 기행에 참여해준 참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4. '밤샘독서' 관련 기사모음

< '밤샘독서'이벤트 :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듬book! >

지난 11월25일(금)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돋움'의 일환으로 밤샘독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듬Book' 이란 이벤트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독서량이 감소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학창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3층 인문과학정보실에서 밤샘독서 신청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100여명의 학생들이 정석학술정보관 3층 인문과학정보실에서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밤샘 책읽기에 도전하였다.

학술정보운영팀 김봉세 팀장이 참가자들에게 행사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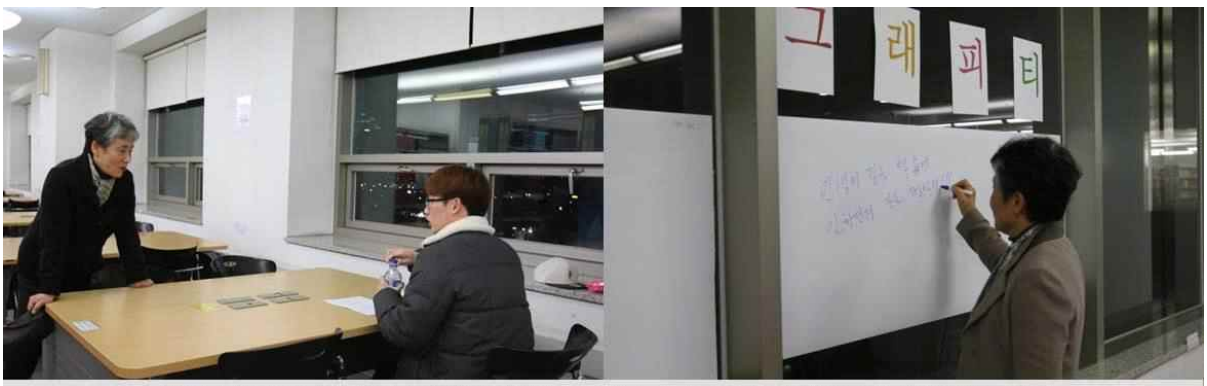
행사 시작 전 학생들에게 행사일정에 대한 안내와 정석학술정보관 관장의 격려 인사말이 있었다.

정석학술정보관 정혜원 관장이 참가자들에게 격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혜원 관장은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밤샘독서에 도전하는 참가자들을 응원하였다.

정석학술정보관 정혜원 관장의 뜨거운 응원과 참여 학생들의 힘찬 파이팅으로 행사가 시작되고 있다.

밤샘독서 여정은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듬Book' 행사명을 힘차게 외치며 시작되었다. 먼저 정혜원 관장이 '불금을' 하면 학생들이 '정석에서', 다시 정 관장이 '추억'을 선창하면 참가자들이 '듬Book'을 힘차게 제창하였다.



정석학술정보관 정혜원 관장이 참여학생을 독려하고 뜨거운 응원의 기념 그래피티를 하고 있다.

정석학술정보관 정혜원 관장은 학생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참가자들을 격려하였고 행사 그래피티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참가 학생들은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선정한 책을 읽고 독서후기를 제출한다.

참가 학생들은 정석100선, 테마추천도서, 신착도서를 선택해서 읽고 독서 후기를 제출하면, 우수 후기 작성자에게는 총 14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제공 될 예정이다.

정석학술정보관 정혜원 관장이 참여학생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다.

정석학술정보관 정혜원 관장이 밤샘독서 여정에 지친 학생들에게 직접 간식을 나누어 주며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환하게 빛나는 3층 인문과학정보실 전경과 뺏지 찾기 깜짝 이벤트 모습이다.

환하게 빛나고 있는 3층 인문과학정보실 불빛을 통해 지칠 줄 모르는 인하인의 밤샘 독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새벽 2시에는 '인하 사랑 뺏지 찾기'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

참여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밤샘독서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밤샘독서 행사는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정석학술정보관 관장 이하 담당부서의 세심한 준비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인하인의 독서문화 증진은 도서관의 핵심 과제이기에, 앞으로도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2016학년도 '밤샘독서' 우수 독서후기 시상식 진행 >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2016학년도 '밤샘독서' 독서후기 시상식이 12월 8일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밤샘독서' 이벤트는 정석학술정보관 3층 인문과학정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제출된 독서후기 가운데 13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2016학년도 '밤샘독서' 행사 후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 백연진(신소재 4학년)
○ 우 수 장 : 나병호(생병과학 3학년), 김자혜(국어교육 3학년)
○ 장 려 상 : 장지성(경영학 4학년), 김유나(사학과 3학년), 이상우(경제학과 3학년)
김성중(사학과 3학년), 김영지(수학과 3학년)
○ 가 작 : 정다희(문화경영 4학년), 우승호(전기과 3학년), 이승준(에너지 4학년)
최유정(경영학 4학년), 고혁준(생명과학 4학년)

우수 후기 수상자에게는 문화상품권(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가작 5만원)이 지급되었다.

정석학술정보관 정혜원 관장이 수상자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정혜원 관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밤샘독서에 대한 참가자들의 좋은 호응으로 앞으로도 행사를 지속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심사 강사님들로부터 응모된 독서 후기에 대한 칭찬을 전해 듣고 마음이 흐뭇하고, 학생들의 뛰어난 자질을 발견하게 되어 매우 반가웠다"고 축하 인사말을 하였다. 더불어 방학동안에도 3가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행복하고 유익한 방학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사를 맡은 프런티어학부 송수연 강사는 "글에서 우리 시대를 짊어지고 갈 지성의 저력을 느낄 수 있어서 기쁘고 든든했다."며 심사평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노유진 학생과 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소재공학과 4학년 백연진 학생은 "학생들이 정석에서 책을 읽기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책과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후기 수상자와 정석학술정보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17 '정석 100선' 목록 ◇

[자연과학]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1	가이아	제임스 러브록	갈라파고스
2	거의 모든것의 역사	빌 브라이슨	까치글방
3	과학	존 그리빈	들녘
4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	까치글방
5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	동아시아
6	링크	알버트 바라바시	동아시아
7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스티븐 핑커	동녘사이언스
8	부분과 전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지식산업사
9	생명이란 무엇인가	에르빈 슈뢰딩거	한울
10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	까치글방
11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을유문화사
12	이중나선	제임스 왓슨	궁리
13	인간의 그늘에서	제인 구달	사이언스북스
14	코스모스	칼 세이건	사이언스북스
15	털 없는 원숭이	데즈먼드 모리스	문예춘추사

[인문학]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1	간디 자서전	마하트마 간디	동해출판
2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	포이에마
3	국가	플라톤	아름다운날
4	그리스 로마 신화	토마스 불핀치	혜원출판사
5	논어	공자	민음사
6	다산시선	정약용	창비
7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김영사
8	맹자	맹자	민음사
9	문명의 충돌	새뮤얼 헌팅턴	김영사
10	방법서설	데카르트	문예출판사
11	사기열전	사마천	청아출판사
12	삼국유사	일연	을유문화사
13	세계사 편력	자와할랄 네루	일빛
14	스피노자의 뇌	안토니오 다마지오	사이언스북스
15	역사 속의 영웅들	윌 듀런트	김영사
16	역사란 무엇인가	에드워드 카	육문사
17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	데이비드 흄	지식을만드는지식
18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센델	김영사
19	존재와 무	장 폴 사르트르	살림출판사
20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케고르	비전북
21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웅진씽크빅
22	통섭	에드워드 윌슨	사이언스북스
23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풀빛
24	향연	플라톤	이제이북스

[문학]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1	관촌수필	이문구	문학과지성사
2	광장	최인훈	문학과지성사
3	구운몽	김만중	문학동네
4	나목	박완서	민음사
5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커뮤니케이션북스
6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문학과지성사
7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와일드	열린책들
8	돈키호테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	시공사
9	마당 깊은 집	김원일	문학과지성사
10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혜원출판사
11	무정	이광수	재승출판
12	무진기행	김승옥	범우사
13	변신	프란츠 카프카	더난출판사
14	사반의 십자가	김동리	계간문예
15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셰익스피어	시공사
16	수상록	몽테뉴	육문사
17	신곡	단테	동서문화사
18	아Q정전	루쉰	문학동네
19	오이디푸스	소포클레스	민음사
20	월든	헨리 데이빗 소로우	은행나무
21	위대한 개츠비	F. 스콧 피츠제럴드	문학동네
22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북로드
23	이방인	알베르 까뮈	부북스
24	인도로 가는 길	E. M. 포스터	열린책들
25	인형의 집	헨리크 입센	민음사
26	젊은 예술가의 초상	제임스 조이스	느낌이있는책
27	주홍글씨	호손	브라운힐
28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민음사
29	카라마조프 형제들	도스토옙스키	동서문화사
30	칼의 노래	김훈	문학동네
31	토지	박경리	마로니에북스
32	파우스트	괴테	을유문화사
33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하서출판사
34	호질,양반전,허생전	박지원	범우사
35	혼불	최명희	한길사
36	황석영(객지)	황석영	창비

[예술]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1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아르놀트 하우저	창비
2	베토벤의 생애	로맹 롤랑	문예출판사
3	서양미술사	에른스트 곰브리치	예경
4	예술로서의 영화	랄프 스티븐슨	열화당
5	예술이란 무엇인가	레프 톨스토이	신원문화사
6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솔

[사회과학]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1	감시와 처벌	미셸 푸코	나남출판
2	국부론	애덤 스미스	비봉출판사
3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	을유문화사
4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까치글방
5	도덕적 동물	로버트 라이트	사이언스북스
6	리바이어던	홉스	서해문집
7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동서문화사
8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열린책들
9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에코의서재
10	세계전쟁사	존 키건	까치
11	소유냐, 존재냐	에리히 프롬	까치
12	에밀	루소	미네르바
13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세종연구원
14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	웅진씽크빅
15	일차원적 인간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한마음사
16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펭귄클래식코리아
17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	홍신문화사
18	총,균,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사
19	페다고지	파울로 프레이리	그린비

2016 'Book돋움' 백서

2017 년 3 월 31일 발행

발 행 인 정 혜 원

발 행 처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편집위원 김 봉 세
이 혜 경
김 윤 희
조 성 필